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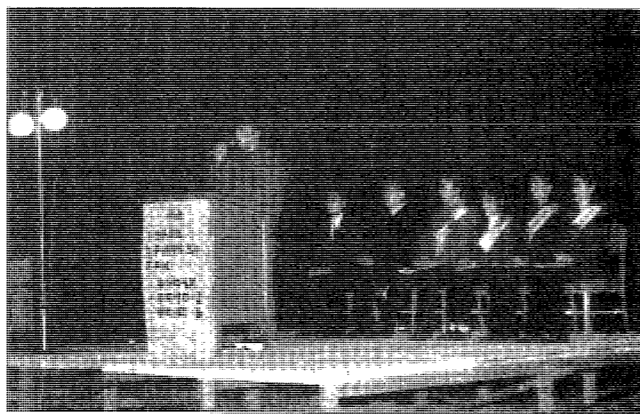
### 총학·총여 투표 18일부터 20일 까지 마지막 유세 오늘 1시 도서관 앞... 경주캠 선거 오는 19일 하루

지난 11일 동국대 앞에서 벌어진 제30대 총학·제13대 총여학생회 정·부 입후보자들의 2차 유세는 각 후보측의 정책과 공약제시가 주를 이루었다.

총여 입후보자 이경원(철3)·이기원(인문학부2)은 "지금 동아내 여성이 설 자리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외치며 학생회 교체 실 확보, 여성 소식통, 3기 배타이 대학, 3월 거리문화제를 실시할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성담론의 일상화를 위해 여성적 글쓰기를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대학은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학이 시대를 창조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 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총학 후보자 허창수(정의3)·김준환(건축공3)은 학생·학교·재단과의 대화장구가 없음을 지적하고 4차공정협의체 구성 계획을 밝혔다. 그리고 해마다 되풀이되는 투쟁위주의 파행적인 학생회 운영은 옳지 않으며 한층련에서 탈퇴해 동아 1만2천의 학생들에게 힘써야 한다고 기존 학생회를 비판했다. 이와 함께 '동국백주년 기념도서관 건립', '국제어학원 설립추진', '고시생 지원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운동권 중심에서 탈피해 대학간 협력을 위한 '신진국대학생 연합회'(가칭) 구성을 내비쳤다.



사진은 지난 11일 동국대 앞에서 있었던 2차 유세 장면

1시에 도서관 앞에서 3차유세가 벌어지며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제30대 총학생회·제13대 총여학생회선거 투표가 진행된다.

경주캠은 단독후보로 나온 제15대 총학생회 및 제 14대 총여학생회 선거가 오는 19일 각 건물별로 치러진다.

### "대각전 도심 신앙 귀처 만든다" 21일 개원 법회 및 기념 세미나

대각전 개원 법회와 기념세미나가 개교1백주년기념사업본부(본부장=한보광·선학)주최로 오는 21일 개교90주년 기념문화관 대각전에서 열린다.

대각전은 개교90주년 기념문화관 예술극장 위에 2개층으로 조성된 법당으로 지난해 2월부터 설계 공사를 시작해 오는 20일 경 공사를 완료하고, 21일에 개원하게 된다.

이날 일정은 △불상점안식이 오전 9시30분부터 11시까지 △개원법회가 11시부터 12시30분까지 △현대인을 위한 도심 포교당의 공간조형"을 주제로 한 개원 세미나가 2시부터 시작된다.

개원법회는 △개회 △삼귀의례 △반야심경 봉송 △정법가 △범어 △경과보고 △오복원 이사장의 법어 △경과보고 △송석구 총장의 개원사 등으로 진행된다.

### 독원스님 명예박사 수여 키르키스탄 국립대 학위

지난 14일 오죽원 이사장이 키르키스탄 민족국립대학에서 명예 철학박사학위를 수여받았다.

이번 박사학위는 오 이사장의 그간 불교계의 정신적 지도자로서의 활동과 교육에 대한 공로가 인정되고, 통일외교 활동에 대한 공적이 높이 평가되어 수여를 받게 되었다.

### 교육개혁 우수대 선정 본교, 작년이후 두번째

본교는 지난 11일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개혁우수 40개 대학에 지난해 이어 올해도 선정됐다.

## 주차 유료화 불만 '상승' 실효는 '주춤'

### 학교 - '보행자 통행원활 일조' 주장 학생 - '교정 주차장화 변한 것 없다'

작년 11월부터 본교는 한정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학내 통행자들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목적으로 주차유료화를 실시했다.

그러나 주차유료화 시행 1년을 맞는 현재 과연 대중교통이 용자가 늘고 학내 주차차량이 감소했는가는 의문이다.

만원씩 내고 주차권을 발급 받은 교직원들은 총 1천 2백여명이다. 이 숫자는 주차유료화를 실시하기 이전 학내 주차스티커를 발급받은 1천 1백 44개보다 오히려 많은 숫자이다.

이에 대해 총무과 오광진 계장은 "이전에 학생들이 불편을 느꼈던 점은 단순히 차가 많이 주차돼 있어서가 아니라 무질서하게 주차된 차량이 시도 때도 없이 이동함에 따라 보행이 불편했기 때문"이었다.

을 생각할 때 '불편만 없으면 된다'는 사고방식은 안일한 해결책을 내놓는 따름이다.

한편 교내 주차비를 살펴보면 보통 30분 1천5백원으로 동문, 외부인사가 주차할 때 똑같이 적용된다.



동여로는 차들로 뿔뿔을 맞고 있다

는 월 1만원만 고려해도 월 1천 2백만원정도이며 이밖에 교내에 드나드는 차량수를 생각할 때 주차수익은 이를 훨씬 웃돌 것이다.

한 많은 버스 노선이 학교방향을 경유하여 운행하므로 교통에 그리 큰 불편을 겪지 않고 있다.

### 동대신문 기획 광고

## 후표를 빼먹으면 동대인의 가슴이 무너집니다



일년 후...



서울캠퍼스 18, 19, 20일  
경주캠퍼스 19일 하루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투표소에 가서  
다같이 선거에 참여합시다.

### 동대신문 사 동대신문

서광과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 신규 기부(약정)지원량 : ₩27,483,950	기간 : 97.11.3-14까지
곽재영(국문52입학)10만원(합502만원)	양태정(경영영06졸)5만원(합11665만원)
김규석(공과대학장)1백만원(합2166만원)	보현회일동(회장 김용철)1백만원
유현우(인문학부교수)1백만원(합3166만원)	임영정(역사교육과교수)20만원(합3366만원)
조규재(연경 조현철의부)1백만원(합4366만원)	김현택(한의학과 석사과정)2백만원
정기진(한의학과 석사과정)2백만원	이연도(한의학과 석사과정)2백만원
전종민(한의학과 석사과정)2백만원	원광사(성종사사장) - 대각전 범종 기증(1천 2백만원 상당)
장원준(정보관리학4년)1백만원 - 대각전 환관 기금	백창례(불교신도)5만원
서상철(불교신도,이도건축)1백만원	이동은(불교신도)1만원(합4024만원)
태현희(기타)2만원(합4024만원)	장원준(정보관리학4년)1백만원
※동국사할머니들기금 - 누계(95.12-97.11.14현재, ₩2,823,390)	조재호(의료원장)31,210원
정진환(교육학과교수) 22,740원	개교 백주년 기념사업본부

# 야총 18일 '동맹휴업'

## 취업자 전형 확대 반발... 학생대표 징계철회 요구

야간강좌내 취업자전형 확대 실시에 반발, 교학과 점거농성까지 실시했던 야간강좌 총학생회(회장=김성문·경제4 이하 야총)가 내일(18일) 하루동안 동맹휴업과 야간강좌 교육정상화를 위한 결의대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문제의 발단은 야간강좌내의 취업자 전형비율이 기존의 50%에서 70%로 상향조정된 사실이 98학년도 본교 신입생 모집요강을 통해 확정·발표되면서 시작됐다. 이에 야총에서는 전반적인 교육환경개선이 이뤄지지않은 상황에서 확대실시는 인권다며 즉각 반발하였고, 이번 동맹휴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야간강좌의 한 학생은 "사회과학계열인 북한학과, 신문방송학과, 아시아지역학부까지 확대선발하는 것은 학교의 돈벌이 학사행정의 실상을 드러낸 것"이라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으며, 실제로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직장인들까지도 이번조처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동맹휴업은 지난 11일 오후 2시 이부대 교학과에서 열렸던 야간강좌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에서 결정된 것이다.

이날 전학대회는 야간강좌내 각과의 학생회장과 학내대표 32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으며 △취업자 전형 선발 확대조치 즉각 철회 △학생대표자에 대한 부당한 징계 즉

각 철회 △야간강좌의 재반교육환경 개선 △11월 18일 야간강좌 전면휴업 △야간강좌 학생들과 교학과 직원들을 위한 농성철회와 동맹휴업 투쟁결의 등이 의결됐다.

이와 관련해 김성문 야간강좌 학생회장은 "이러한 야총 학우들의 요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2차, 3차 동맹휴업이 있을것"이라고 밝히고, 의결사항에 대한 학교측의 수용을 주장했다.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의 교학과 점거농성과 이후 야총의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이 학생처에 소환돼 사실상 징계가 확정된 상황에서 실시되는 이번 동맹휴업은 학생회와 학교간 불신의 감정을 더 깊게 할 것으로 보인다.



탐험가의 뗏목... '오랜기간의 풍파를 이겨낸 정복자 앞에 사람이 모였다' 사진은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황해탐 사보고회 및 뗏목·사건전시회'에서 모습을 드러낸 '동아지중해호'. 이번 전시회는 오는 21일까지 개교 90주년 기념 문화관 및 야외의 예술극장 1층로비에서 계속된다.

## 회전무대

### 절약정신(?)

0...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요즘 정계에서는 때마침 올림픽 노래가 불리고 있는데,  
알아보니 지난 13일 자민련의 김종필 총재가 드디어(?) 깃발을 내리고 DDD로 들어간데 이어 신한국당과 민주당도 후보 단일화에 서명을 했다고.  
처음에는 5명의 후보들로 복잡했던(?) 대선 정국이 지금은 3파전으로 양상이 바뀌어,  
이에 본 회전무대자 알 "대선도 콩 나뉘면기식?"

### 맥도날드!!!

0...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친다?  
지난 10일, 1달리당 원화환율이 사상 처음으로 1천원으로 치솟았는데, 이러한 환율상승에 발 맞추어(?) 기업의 외채부담은 커지고, 물가도 뛰여 오른다고 하니, 국민들의 한숨과 주름살은 깊어 가지만 정부는 마땅한 대책이 없어 발란 등등 구른다.  
이에 해외유학생 한숨을 내쉬며 말하기를, "천원으로 뭘 먹지!!!"

### 넘버쓰리

0... 권영길과 김대중, 이회창, 이인제의 차이점은? 정답은 바로 권영길은 TV토론에 한번도 출연하지 못했다는 것.  
연기력(?)이 부족해서도, 외모(?)가 안패셔도, 지식(?)이 모자라서도 아니요, 단지 지지율이 낮다는 이유로 언론사에서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데,  
이에 착잡한 본 회전무대자 한다. "권영길은 (1)류, 나머지는 (3)류, 그래서 정치판이 넘버쓰리 (!!!)"

### 표 있습니다

0... 정책자료집은 재활용이 가능하다!! 지난주 화요일, 총학생회와 총여학생회 정·부학생회장 임후보자들의 정책자료집이 나와 각 단과대 학생의 등에 배포됐는데,  
선거운동원과 임후보자들이 직접 학생들에게 자료집을 나눠주며 홍보하기도. 그러나 선거에 무관심한 일부 학생들, 자료집을 읽지도 않고 휴지통에 버린다는 하니,  
이에 본 회전무대자, "8일부터 20일까지는 투표일입니다. 권리·양심 다 버려도 표는 버리지 마시라. 회전무대자 생가 END"

## 캐나다 유학 설명회 개최

### 오는 21일 학술문화관에서

학생생활연구소(소장=고진호·교육학)는 '캐나다 유학 및 어학연수 설명회'를 오는 21일 오후 3시에 개교90주년 기념문화관(K309)에서 개최한다.

이 행사는 캐나다 대사관의 협조로 유학과 어학연수 설명회와 이어 대한 학생들의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된다.

이와 관련해 학생생활연구소의 임병연 연구원 "캐나다는 비용이 저렴하면서도 미국 영어권에 속해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행사의 의미를 밝혔다.

## 교육비 납입증명서 배부

### 각 단과 교학과 비치

경리과(과장=박환호)에서는 지난 13일 부터 다음달 말까지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각 단과대 교학과에 비치해 학생들에게 배부하고 있다.

97학년도 등록금 납입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배포되는 교육비납입 증명서는 우편으로 배달되던 예년과 달리 학생들이 직접 증명서를 찾아 가야 한다.

이와 관련해 경리과 측에서는 "비용절감과 분실방지를 위해 학생들이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원 증명서를 찾아가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 '인도독립 50주년 기념 심포지움'

### 오는 20일 예술극장에서 개최·인도독립 현대적 의의 조명

### 본교·인도와 우의 증진 도모... 내년엔 인도 네루대에서

연구교류처(처장=박거덕·수학) 학술교류부는 오는 20일 오후 2시 개교 90주년 기념 문화관 예술극장에서 '인도독립 50주년 기념 심포지움'을 개최한다. '인도독립정신의 현대적의미'라는 주제의 이번 심포지움은 본교와 자매대학인 인도의 네루대학과 합동으로 열린다.

이날 심포지움은 학술교류부장인 양영진 교수의 사회로 △아시아스타 네루대 총장의 '인도의 독립과정과 세계평화'를 주제로한 개회사 △오대원 본교 이사장의 환영사 △사샤르 주한인도대사와 임덕규 한·인도 친선협회장의 축사 △송석구 총장의 '21세기 한국과 인도, 그 동반자적 관계의 의미'라는 내용의 기조강연 등으로 진행된다.

이어서 트리시타나 네루대학교수의 '인도의 독립정신과 네루의 정치이상' △김창수(본교 명예교수·역사교육)교수의 '한국 및 인도의 독립운동과 아시아적 의의' 발표와 김우조 한국외대교수와 김하우 고려대학교수의 토론이 열릴 예정이다.  
또한, 개교 90주년기념 학술문화관 예술극장과 전시장에서는 각각 인도영화 '간다'가 상영되고 '인도 독립 사진전시회'가 선보인다.  
이와 관련해 학술교류부의 한 관

계자는 "양교와 양국의 우의를 증진하기 위해 올해는 본교에서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고 내년에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50주년 기념 심포지움'을 인도 네루대학에서 실시한다"며 이번 세미나의 의의에 대해 밝혔다.

## 복수전공 7백 47명 합격

### 문예창작전공 가장 높은 지원률 보여

### 교무처(처장=김주환·지리교육)

는 지난 12일 복수전공 합격자를 확정 공고했다.  
97년 2학년 2학기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번 복수전공은 야간강좌를 포함한 11개 단과대 총 2천8백 90명 정원에 7백83명이 지원해 7백 47명이 합격했다.  
문과대와 예술대를 제외한 타 단

과대는 지원자 전원이 합격했으며, 문예창작전공은 10명 정원에 27명이 지원해서 가장 높은 지원률을 보였다. 그러나 식물자원전공과 체육교육전공을 비롯한 4개 전공에는 지원자가 없었다. 한편, 복수전공자 선발은 정원초과시 성적우선순위로, 단 예·체능계 전공 지원시에는 지적시험을 실시했다.

## 불교대 학생회장선거 정준호·권기태조 당선

제30대 불교학생회 정·부회장 선거에 기호 갑 정준호(불3)·권기태(불교학부2)조가 당선됐다.

지난 3일 부터 이틀동안 진행된 예정이었던 투표가 불교대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유운호·불3)의 해례로 연기돼 지난 12일 부터 이틀간 치러졌다.  
총 유권자 3백15명 중 2백9명

이와 관련해 정준호(불3)·권기태(불교학부2)조가 당선됐다. 정준호(불3)·권기태(불교학부2)조가 당선됐다. 정준호(불3)·권기태(불교학부2)조가 당선됐다.

## 공대선거 '재투표' 논란 매듭

### 내년 3월연기... 유흥식조 재투표 거부로 일단락

제 20대 공과대 정·부학생회장 선거 재투표 논란이 유흥식(산공2)·이홍범(공학계열2) 선거운동본부(이하 선운본)의 재투표 거부로 일단락 됐다.

지난 5일과 6일 실시된 투표결과 참여율이 45.72%로 저조하여 학생회장 선출이 무산되자 유흥식·이홍범 선운본은 "신영용(컴공2) 학우의 선거 거부 대차보, 선전물 훼손, 선운본 비방 유인물, 투표 과정에서 방해 행위를 선거관리위원회가 방치해 선거가 공정하게 치뤄지지 못했다"는 이유로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박병제·철4)에 제기했다.

이에 박병제 선거위원장은 7일 총회를 열어 이의를 받아들여 재투표 실시를 결정했다.  
그러나 공과대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한재규·토목4)는 "이번 실시된 투표의 결과 또한 학우들의 의사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재투표는 있을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사퇴의사를 밝혔다.  
그 결과 유흥식 선운본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재하에서 투표를 한다는 것은 더 이상의 의미가 없고 공정하게 치뤄지기도 힘든 것"이라며 재투표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과대 회장단 선출은 내년 3월로 연기됐다.

## '사랑의 옷' 복동포 많은 도움될 터

### 20박스 옷 수거·우리민족서로돕기 운동본부 전달

교수회(회장=김익기·사회학)와 직원노조(위원장=김정숙) 및 생활협동조합(위원장=김진철·정치의교학)으로 구성된 본교 북한주민돕기 운동본부는 지난 10일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공동대표=민병천)에서 '사랑의 옷' 전달식을 가졌다.  
본교 북한주민돕기 운동본부에서 벌인 두 번째 사업인 '사랑의 옷 보

내기' 운동은 지난 10월 20일부터 11월 7일까지 전개됐으며 20박스의 옷이 수거됐다.  
이에 김형욱 노조위원장은 "북한 주민 돕기에 많은 교직원과 학생들이 참여해 준 것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불교운동본부로 전달된 옷은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본부로 전달될 예정이다.

# 동국대학교 교수초빙

명문사학의 전통으로, 도약을 향한 새로운 비전으로!  
지금 21세기 열린교육의 장을 이끌어갈 이 땅의 참스승을 찾습니다

### 1998학년도 제1학기 교수초빙

## 전임교원

학 부(과)	초빙 분야
불교학부	유신학(불교교학)
인문학부	이데올로기·사회철학
국어국문학부	국어학(음운론) 회국어론 및 창작
영어영문학과	미국사설
법학과	형법 민사소송법
경찰행정학과	경찰학
신문방송학과	방송학(이론 및 실습) MIS(Database)
경영학부	매체기획
회계학부	회계학(세법 및 재무회계)
전자·전기공학부	VLSI시스템설계
건축·토목공학부	건축시공 건축사학
식품공학과	식품가공학 식품레이션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컴퓨터네트워크
역사교육과	사건사교육론
수학교육과	수학교육교육 및 수학교육사
가정교육과	식품영양(조리지도 가능자)

학 부(과)	초빙 분야
외국어문학부	영미문화비평
역사학부	역사고고학
사회체육학과	운동처방(실기과목 혼실경기 가능자)
법정학부	한국정치
법학과	헌법
경찰학부	MIS
한의학과(기초)	원전·의사학 분당방방방방방 인이인후과
한의학과(임상)	인천한방병원 소아과
의학과(기초)	육안해부학
의학과(임상)	경주병원 : 내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진단방사선과 포항병원 : 정신과, 소아과, 진단방사선과

## 초빙교원

- 1. 초빙인원 : 각 분야별 명
- 2. 자격 : 사립학교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나. 해당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의학, 예·체능계열은 예외)  
① 인문·예·체능계열은 1953년 3월 1일 이후 출생자.

- 3. 제출서류 : 각 분야별 명  
가. 교원임용지원서(본교소장인) ..... 3부  
나. 연구실적 목록(제목, 연구지, 발표지, 논문요약 순서 기재) ..... 3부  
다. 임용후 수월한 연구계획서(4,000자 내외의 분량, 초빙기간은 재임용) ..... 3부  
라. 학위 및 성적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 각 1부  
마. 경력 및 재직증명서(재임용의 경력(재직기간 열거)) ..... 각 1부  
바. 연구실적(특허논문 1994년 3월 1일 이후 발표된 논문, 저서 등) ..... 각 1부  
사. 전문의 자격증 사본(해당과 한함) ..... 1부  
아. 1994년 3월 1일 이후 각종 수상 및 특허 증명사본(해당과 한함) ..... 각 1부  
자. 여건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외국에 한함) ..... 각 1부
- 4. 제출기간 및 제출처 : 1997년 11월 27일(목) ~ 11월 29일(금) 17:00까지(우편접수는 접수일당 17시 이전 도착분에 한함)  
나. 서울 및 경주캠퍼스 교수과(지원하는 캠퍼스별로 접수)  
다. 경주캠퍼스 의과계열 임용분야 지원자는 동위로보일 총무과에 접수
- 5. 기타 : 가. 심사대상 연구실적들은 본인이 원하는 심사위원 순위가 명기된 별도의

목자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나. 외국박사학위 취득자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박사학위 신고 접수증 사본을 첨부하고, 외국어로된 증명서는 본인인 남인한 번역문을 제출 하되 기한 주소를 하단에 명기 할 것.  
다. 제출서류 미비 및 본교내 이종지원은 접수가 불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라. 심사후 초빙예정자에게는 개별통지하며, 적정자가 없을 경우 초빙하지 아니함.  
마. 전임강사, 조교수의 경우에는 각각 2년, 4년의 계약제로 임용하며, 일어일문학과 초빙교원은 한국어 능동자를 우대하며 1년의 계약제로 임용함.  
바. 인터넷이용자는 웹주소 http://www.dongguk.ac.kr/DGUH에 접속 하면 교수초빙 공고문 및 교원임용지원서 down 받을 수 있음.  
\*본교에서는 학문적 업적이 탁월한 분 또는 실무경력이 풍부한 분을 석좌교수, 겸임교수로 특별히 초빙하고 있습니다.

- 서울캠퍼스 : 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3가 26 TEL (02) 260-3859~3860
- 경주캠퍼스 : 780-714 경상북도 경주시 석왕동 707 TEL (056)1770-2023~2024
- 동국의료원 총무과 : 780-714 경상북도 경주시 석왕동 1090-1 TEL (056)1770-8111~8112



\* 본교는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학술과 인격을 겸비하고 민족과 인류사회 및 자연에 이르기까지 지혜와 자비를 숭상하여 서로 신뢰하고 공경하는 이상세계의 구현을 건재함으로 한다.

# 영장실질심사·사전구속영장발부시기 등 법원·검찰 대립

## 법원의 직무·직업윤리 확립이 사법권 보장 지름길

지금 법원과 검찰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은 결코 이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인 것 같다. 최근의 사건들만 보아도 영장실질심사에 대한 갈등, 사전 구속영장 발부시기 대립, 양형기준법의 마찰, 퇴직금 우선변제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은 사법권의 신뢰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사건들이다.

또 다른 하나는 사법부 내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관료화' 경향이라 하겠다. 지난 역사적 상황을 돌이켜 볼 때 정치권에 대해 사법부가 취해야 할 자세는 사법권의 독립을 지키고자하는 의지와 기백이 부족할 뿐 아니라 자주성을 잃고 제멋대로 정치권력에 영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지 오래다. 이러한 원인을 전적으로 사법부의 관료화에 돌리는 것은 너무나 단순한 견해이며 찬성하기 어렵지만 많은 식자들에 의해 지적된 관료화 경향은 위에서 지적한 사태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사법부의 관료화행은 법관의 직업윤리와 양심을 후회시키고 몸조심이나 타협

이나 형식적 책임에 행동기준을 돌으로써 재판은 내적으로 부패해 가는 원인이 될 것이다. 사법권의 독립이 있어서 내적인 체질약화는 외부로부터의 공격보다 더 중대한 문제라 생각된다.

오늘날 법관은 상술한 바와 같이 정치적 이데올로기 내지는 가치관의 문제가 교차하는 평면에서 그 양심과 본연의 자세를 추궁받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법관에게 있어서 특유한 임무와 직업윤리와 문제라 하겠다. 지난날 군사정부에서의 법관의 양심이 실하게 시련에 부딪혔던 경험은 법치적 통제가 아닌 정치적인 사상적 통제였고 지금 문민정부에서의 시련은 법치적 전환에서 생긴 일련의 공안사건에서의 시련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특히, 후자는 재판이 과거와 크게 달라진 것이 아니라 그대로 계속돼왔으니 그 근본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소수 법관을 제외하면 그 시기의 철저한 반성과 검토가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오늘날까지 쓸쓸한 뒷맛을 남기고 있다.

사법권이 엄정한 행사를 실현하기 위해

### 사법부의 관료화 진행

서는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되어야 한다. 사법권독립에 대한 요구는 사법의 작용이 공평을 필요로 한다고 하는 신념에 근거한다. 이 독립은 법관의 양심의 행사가 다른 어떠한 권력이나 힘에 의하여 좌우되어서는 안된다. 권력은 '힘의 논리(exercise of power)'라고 한다. 즉, 권력을 잘못 사용함으로써 '선' 혹은 '악'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 제1백3조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명기한 것은 그 취지에 근거해 당연히 통행의 영역 및 소위 마켓트 초안에서는 법관은 헌법같이 그 양심의 행사가 있어서 독립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법관은 이에 관한 유행무형의 외부 압력 내지 유혹에 굴하지 않고 자기 양심과 도덕감에 따른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모든 법관은 법의 범위내에 있어서 스스로 옳다고 믿는 것에 따라서 재판을 한다면 그것은 헌법의 양심에 따라서 행한 법관이라고 할 수 있다.

학계의 통설은 소위 객관설의 색채가

### 시사논단



이상현

이것보다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위압스는 다르지만 근본적으로는 차이가 없는 입

사과대 경향행정학과 교수 장을 취하고 있다. 양심이란 의

부로부터의 지시에 구속됨이 없이 자기의 자주적인 판단에 따른 의미라고하여 그것은 독립하여야 같은 취지라고 이해한다. 즉, 양심은 주관적인 종교적, 윤리적 또는 정치적 의견이나 신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법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객관적인 의미가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것은 법관의 주관적, 개인적인 생각에 의해서 해석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양심에 따른 해석은 아니다.

현재의 새로운 국면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사법부 전체의 반성을 포함한 법관 본연의 자세와 양심을 법집사의 기본 목적과 비교해보고, 그 깊은 성찰에서 재출발하여 사법권이 현재 담면하고 있는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 사설

## 현명한 유권자의 선택

늦가을의 정취가 만연한 이번주는 제 30대 총학생회 선거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간간히 불은 대자보를 제외하고 나면 학내에서 선거 분위기를 느끼기란 쉽지 않다. 두차례에 걸쳐 진행된 유세와 한 번의 공청회 역시 운동원들 외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 학생들은 소수에 불과했다. 학생들의 정치불신, 선거무관심이 어찌어찌 일어난 일이라지만 올해는 그 현상이 유난히 심해 경선임에도 불구하고 투표율 저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려온다.

그러나 선거에 참여하겠다는 일부 학생들 역시 한층 '사수'와 '탈퇴' 여부에만 관심을 표해 동급대의 총학생회 선거가 마치 '한층 총투표'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선거는 내년 학생회를 책임질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으로 정책생상의 장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생들의 이해와 요구에 기반한 학생회가 되어야 함은 물론 선거가 학생회 강화에 부수해야 하며 결코 약화시키거나 깎아내리기가 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현실은 한층 '사수'와 '탈퇴'의 논쟁 속에 학생들은 갈 곳을 잃어가고 있다. 중요하고 실질적인 학내정책들은 공론화 되지 못한 채 사장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권자의 자세일 것이다. 유권자의 가장 큰 의무이자 권리는 투표에 임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단계 더 나아가 현명한 유권자라면 선거참여는 물론 각 후보들의 정책을 꼼꼼히 비교분석한 후 신중히 선택하는 것이다. 내세운 공약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 그만한 역할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그것이 담보되지 않는 핑크빛 공약에 현혹되는 안위가 필요하다.

이제 마지막 유세를 치르고 나면 선거가 남는다. 이번 한주가 내년 한 해 학생회의 길잡이를 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1년 한해를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

### 편입생 취업 진단

## 편입생은 기업의 미운오리새끼

### 형평성 고려한 인사정책 필요

날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는 취업의 문을 통과하고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취업수험생들의 모습은 마치 '전쟁'을 방불케 한다.

그러나 편입생들은 취업전에서 할 한 번 제대로 휘둘러 보지 못하고 물러나거나 심지어는 취업전에서 제외되는 실용을 겪고 있다. 기업이 대학에서 추천을 받거나 공채로 신입사원을 모집할 때 편입생을 기피·감점조치하기 때문이다.

얼마전 모 일간지에서는 한 학생이 편입생이라는 이유로 취업추천을 받지 못했다는 기사를 보도해, 우리사회에서 보이지 않게 일어나고 있는 '편입생 취업차별'을 드러낸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문제는 타대학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남의 일이 아니다. 본교 편입생들도 취업에 있어 차별대우를 받기는 마찬가지다. 본교 취업과의 한 관계자는 "몇몇 기업들이 추천서를 보내며 편입생들은 피해서 추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편입생들과 취업상담을 할 때 내색은 안 하지만 고민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다"고 밝혔다.

편입생들은 추천을 받을때만 부당한 대

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공채시 서류전형에서 또한 다시 한 번 실용을 당해야 한다. 신입사원을 공채로 모집하고 있는 대기업 가운데 삼성과 SK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들이 원서상에 지원자의 편입여부를 체크하게 해 이를 감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최근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중소기업에서도 올해부터 편입여부를 기재하는 칸을 추가해 편입생들의 심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사과대의 한 학생은 "솔직히 우리나라는 간판을 우선시키고 있어 취업 할 때 조금이라도 유리할 것 같아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에 왔는데, 편입생들은 신입사원 모집에서 뒷전이라니 어이가 없다"며 "편입생으로서 겪는 지금의 실용을 사회에 나가서까지 짊어져야 한다는 것이 억울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러한 취업차별에 시달리고 있는 이들은 현재 2만여명. 이들은 다름 아닌 지난해 교육부의 편입학 확대 조치로 4년제 대학에 편입해 내년 2월 졸업 예정인 학생들이다. 그러나 기업들의 편입생 차별모습으로 인해 사회로 진출하려는 그들의 의지는 빛이 바래 아예 취업을 포기하는 경우



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 더 큰 문제는 편입생이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할 것이라는 데 있다.

형평성이 그 어느 분야보다 철저히 지켜져야 할 취업분야에서 이것이 무시되고 있어 편입생들의 마음을 한없이 무겁게 하고 있다.

'능력중심'을 외치고 있는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편입생이라는 이유를 들어 하나의 집단을 차별하고 있는 것은 커다란 모순이다. 기업이 계속해서 수도권 대학 정원의 30%가량이나 차지하고 있는 편입

생들을 의면한다면 그것은 기업 뿐 아니라 국가적인 손해가 아닐 수 없다.

편입생이기 때문에 실력이 없다는 논리는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가. 편입생 역시 같은 캠퍼스, 같은 강의실에서 공부를 한 그 대학의 졸업자임에 틀림이 없으며 그들 또한 무한의 능력과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기업은 취업에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는 근시안적인 인사정책에서 벗어나 공정한 태도를 취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김윤환 기자

## 국제정보대학원 설립의 쟁거

이번에 본교에 국제해양정책학과, 국제관계학과, 정보보호학과와 3개과로 구성되는 국제정보대학원의 설립 인가가 났다. 이는 타대학과 치열한 경쟁 끝에 얻어낸 것으로 본교 90여년 역사상의 쾌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지하다시피, 오늘날 전 지구적인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정보화와 물결은 마침내 국제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바야흐로 '지구촌'이 실현되려는 시점에 이르렀다. 이러한 시대변화에 대응하는 의지를 표어화해서 부르는 호칭이 소위 '국제화', '세계화'에 나타나고, 그 실현여부에 국가의 명운이 걸려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국제화·세계화에 따른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문화 등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국제사회의 변화와 변동을 과학적으로 예측, 설명, 평가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일을 담당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본 국제정보대학원의 설립목적으로서, 꼭 필요한 때에 꼭 필요한 기구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러한 성격의 대학원의 필요성은 여러 대학 모두가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만큼 경쟁도 치열했었는데, 특히 본교에 그 설립인가가 우선적으로 났다는 것은, 본교의 역량이 그만큼 높히 평가되었기 때문으로 참으로 자랑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긴 역사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디었던 본교가 요즘에 와서 오랜 침체를 떨치고 일어나서 도야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 데에는, 85년도에 시작된 대학 교육개혁을 본교가 선도했으며 그 어느 학교보다도 성공적인 개혁을 이루어냈다는 사실과 그것을 계기로 학교발전의 가시적인 성과를 산출해 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는 자신감이 직접적인 계기로 작용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절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드디어 국가의 최우선적인 국제사업과 관련된 '국제정보대학원'을 설립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이는 모두 그간 학교발전을 위하여 적극 동참한 전통적인 국민과 불교인의 후원 덕분이다. 이번의 쾌거를 계기로 다가오는 통일시대를 선도할 명실상부한 사학의 명문으로 거듭 성장할 수 있도록 일체단결하여 모든 역량을 한 데에 모자.

### 에너지와 정보통신의 선정



## 도전한다는 건 꿈이 있다는 거다.

누구나 그런 심리가 있다. 어릴적 운동회때 계주시험, 팽팽한 긴장 속에 느꼈던 짜릿한 승부의 흥동. 거기에 역전의 기대와 그 속에 발휘될 자신의 탁월한 활약에 대한 꿈이 있다. 인생의 승부도 이처럼 겉으로 보이는 순서대로 정해지지는 않는 법.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만들어가는 최고의 도전이야말로 꿈의 의미를 아는 젊음의 선택이다.

선경은 에너지·화학 정보통신을 중심으로 하늘과 땅에 새로운 자원개념을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원인 나라, 그 사람을 키우는 선경.

선경그룹 주주회사 SK는 유공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에너지·화학 SK/선경나노스트리/SK/에너지관리/SK가스/SK유통개발 ■정보통신 SK텔레콤/선경유통/SK컴퓨터통신/대한텔레콤/이리콤코리아 ■금융 SK증권 ■건설 SK건설 ■호텔·레저 SK레미티에르 ■물류 SK해운 ■중공업 SK주요기업

선경은 연중 상시로 인재를 모집합니다.

선경채용상담실 (02)736-0222, 0212 서울특별시 용지로2가 36-1 선경빌딩 1층  
Internet 채용 Homepage http://www.sk.co.kr



동약로



단상(斷想)

한 학생이 동약관을 지나다가 들려오는 마이크 소리...

"유세요? 괜히 시끄럽기만 하네요" 한 학생은 선거에 대한 무관심뿐만 아니라...

요즘 동약내 선거에 대한 단상이 여실히 들어나고 있는 모습이다.

후보자들의 정책자료집이 강의실이나 창틀, 심지어 쓰레기통에까지 그 주인을 잃은 채...

지난 11일 2차유세 도중에는 후보자들이 준비한 퍼포먼스, 노래에 맞춘 율동까지 등장하고...

"저희는 000을 준비했습니다." "000은 지금 동약의 문제이며 저희들의 힘으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라고 유세장에서...

유세에는 한번도 참여하지 않고, "학생회 선거"를 외치는 학생들도 비밀비재하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의견을 하기보다...

내년 한해 동약을 대표할 일꾼을 뽑는 선거를 그냥 먼 발치에서 바라만 보며, 혹은 외면만 하고 있지 않는지...

97 전국 노동자 대회



사진은 지난 9일 열렸던 97 전국 노동자대회의 모습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퇴직금우선변제 규탄 및 퇴직연금제 의무화 주장  
기아·아시아 제3차 인수 철회 및 고용안정 보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직무대행=배석범 이하 민주노총)은 지난 9일 여의도 한강 둔지에서 노동자, 시민 3만명이 참여한 가운데 '97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꽃다지'와 부산지역노래패 '일터'의 문화공연을 시작으로 전국노동자대회 식전행사가 시작됐고, 민주노총의 연합문선대공연, 전태일 노동상 시상식 순으로 진행됐다.

전태일 열사 기념 사업회(회장=김금수)가 지난 88년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는 취지에서 제정한 전태일 노동상을 올해의 영예는 단체상 삼미특수강 노동조합, 개인상 민주노총 울산본부 노무회 부위원장에게 돌아갔다.

고용안정, 경제민주화, 정치세력화를 위한 이번 노동자대회는 국민승리21의 후원으로 △깃발일장 △민중의례 △조직 및 내빈 소개 △배석범 위원장 직무대행의 대회사 △국민승리21 이창복 공동대표의 연대사 △정치실천단 발대식 △권영길 위원장 특별연설 △상징의식 △결의문 채택 △폐회식 순으로 치러졌다.

배석범 위원장 직무대행은 대회사에서 "하루 아침에도 수백개 기업이 도산하고 있고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정리가 되고, 파견근로, 최후의 보루인 퇴직금박탈 등 총자본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다"며

"정치권의 세대교체를 위해서는 국가권력 구조를 기초부터 개편해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진보정당의 건설을 위해 권영길 국민후보를 60만 노동자가 함께 추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회사에 이어 국민승리21 이창복 공동대표는 연대사에서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노동자에 대한 포함제철의 완전 고용승계 △기아·아시아에 대한 제3차 인수 포기 및 고용안정 보장 △택시안전원금제 폐지 △아 대선후보와 정당이 고용안정과 경제민주화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조치가 없을 경우 대대적인 낙선운동 전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해 국민후보를 총력 지원하겠다"고 민주노총 60만 노동자는 결의했다.

또한, 이날 대회에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실현하고 권영길 국민후보의 대선승리를 위해 2백명의 민주노총 산하조직 실천단장과 실천단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노동자정치실천단 발대식을 성대하게 개최했고, 대선까지 10만 실천단원 모집과 21억원 모금운동을 전개하겠다는 선서가 있었다.

정치실천단의 발대식이 끝난 후 이어진 권영길 후보의 특별연설에서 그는 "용역 강권에 의해 직장에서 내몰리고, 각종 노동조합이 노조교섭권을 인정받지 못하며 기본권까지 유린당하는 현실에서 재벌의 횡포와 생존권 불안에 노동자들은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밝히며 "나 하나만 대통령후보가 아니라 민주노총 60만명 한 사람 한 사람이 후보이다. 1천2백만 노동자의 목에 칼날이 되고 있는 정리가 되고, 변형

근로제, 근로자 파견법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승리21은 대선투쟁을 끝까지 전개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연설을 마쳤다.

이어 진행된 결의문 채택을 통해 △퇴직금 우선 변제기간 3년의 정부 개악을 규탄·임금채권보장기금 신설, 퇴직연금제 의무화를 강력히 촉구 △삼미특수강 노동자에 대한 포함제철의 완전 고용승계 △기아·아시아에 대한 제3차 인수 포기 및 고용안정 보장 △택시안전원금제 폐지 △아 대선후보와 정당이 고용안정과 경제민주화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조치가 없을 경우 대대적인 낙선운동 전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해 국민후보를 총력 지원하겠다"고 민주노총 60만 노동자는 결의했다.

삼미특수강의 한 노동자는 "상징투쟁까지 벌이며 생존권을 찾기 위해 인간임을 쓰고 있다"며 "모든 경제·정치적 위기를 권영길 위원장이 해결해 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대회 소감을 피력했다.

97전국노동자대회는 최악의 정치적·경제적 위기로 치달고 있는 현 시점에서 노동자들의 생존에의 몸부림을 알리는 행사였다. 그러나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위한 국민승리21의 대선승리는 아직도 멀게만 느껴지는 것은 아닐까?

오인택 기자

노동자대회에서 만난 사람들

- 삼미특수강 이동신 씨 -

“노조원의 고용승계 이뤄져야 한다”

97전국노동자대회에서 전태일노동상 단체부분을 수상한 삼미특수강노동조합의 이동신 조사·통계부장을 만나 수상소감 등을 들어 보았다.

-제 6회 전태일노동상을 수상했는데 소감은. =전태일 열사정신을 올바로 구현하는 것이 전태일노동상의 제정취지로 알고 있다. 아직도 삼미특수강의 2백일이 넘는 장기화투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렇게 수상하게 되어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끝까지 투쟁해서 우리 노동조합원들의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지금까지 투쟁을 하면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투쟁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이번에 절실히 느꼈다. 특히, 당장 직면해 있는 우리 조합원들의 생계문제가 걱정이다. 또한 가족들과 떨어져 투쟁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노고에 미안할 뿐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앞으로의 삼미특수강 노동조합의 투쟁방향은. =지금까지는 우리 노동자들이 처한 상황을 알리는데 중점을 둔 투쟁이었다. 앞으로는 포함제철 본사를 직접 점거하는 등의 보다 적극적인 투쟁을 할 계획이다.

-노동계의 재야를 대표해서 민주노총 권영길 위원장이 이번대선에 출마하게 되었는데 노동자로서 이에 대한 견해가 있다면. =우리들의 숙원은 바로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이다. 늦었지만 권영길 위원장이 대선후보로 출마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하고, 노동자와 서민의 대표로 출마한만큼 꼭 당선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번 권영길 위원장의 출마를 계기로 노동자의 정치세력화가 꼭 이루어졌으면 한다.

유철주 기자

- 기아그룹 노조간부 박기연 씨 -

“제 3자가 인수하면 총파업 불사”

기아그룹 노조간부 박기연(가명)씨를 만나 기아사태에 대한 생각을 들어 보았다.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참석하게 된 동기는. =나 또한 노동자의 일원으로서 당연히 이번 대회에 참가해야 하며, 현재 기아 그룹 내 잇따른 연쇄부도의 여파 속에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되찾고, 기아그룹의 기업회생과 경영 합리화를 조속한 시일내에 기밀로 사수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참가하게 되었다.

-전반적인 경제침체위기에 대한 생각은. =지금도 주위를 둘러보면 수많은 기업들이 부도 위기에 처해 있다. 또한 노동자들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기업으로부터 강제 해임되거나 노동탄압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하루 빨리 지금의 불안한 경제 위기 상황을 속지해야 하며,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뿐더러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해야만 한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기아의 제 3차 인수설과 관련해 노조측의 입장은. =정부는 기아의 3차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기아노조측은 3차인수 철회운동전개, 고용안정, 회사정산화 등 3대 목표를 내걸고 선전작업을 추진한 바 있다. 앞으로 정부가 3차 인수를 철회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경우, 우리는 즉각적인 총파업을 단행할 예정이다.

-대선과 관련해 이번 행사가 갖는 의의가 있다면. =오는 12월 18일에 있을 대선에 노동자 진영의 민주노총 권영길 위원장이 출마하게 되었다. 이에 따른 반대론과 찬성론이 상충돼 그 여파가 본대회까지 이어진 것 같다. 그러나 권영길위원 대선 후보로 출마한 이상 정치세력화의 부상이 최고 목표가 될 것이며, 아울러 권영길 후보가 노동자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해 주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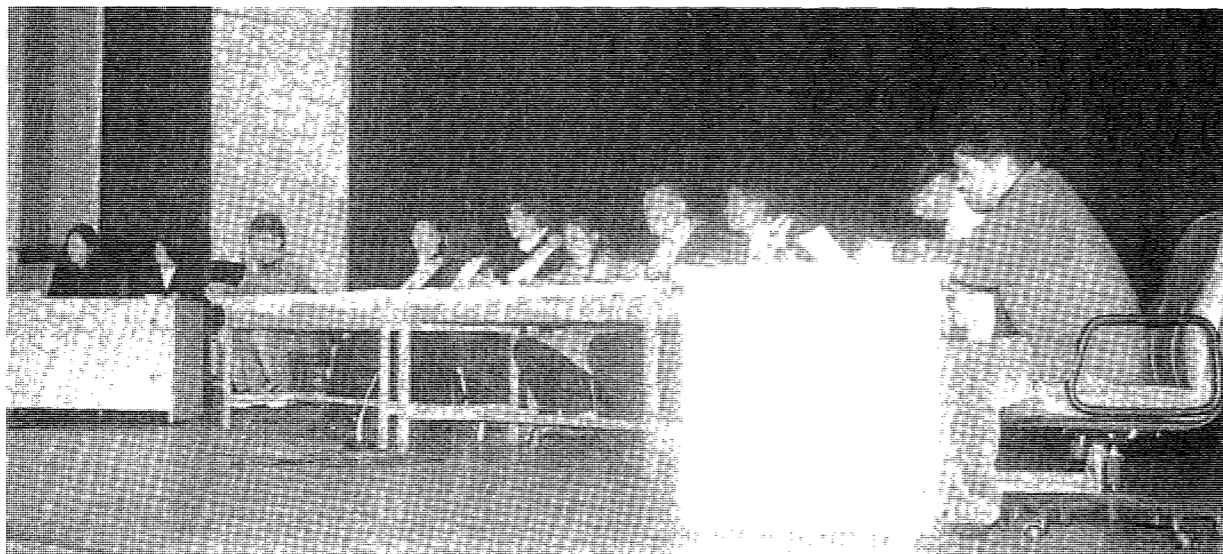
장희정 기자

Advertisement for Canon CC (Canon Couple) printers. Features images of a woman and a man, and two printer models: BJC-210SP and BJC-4300. Text includes '우리는 CC Canon Couple', '카트리지를 하나로 2400장까지 프린트한다!', and '프린터에 스캐너 기능까지 갖췄다!'. Includes a list of regional sales offic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Lotte and Canon.

총학·총여 후보자 공청회

오는 18일부터 3일간
치러질 제30대 총학생회·제13대
총여학생회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의 공청회가
지난 15일 중강당에서 열렸다.
본사 및 DUBS, 교지편집위원회,
동국포스트 등 4개 언론사의 패널과
후보자들과의
공청회를 지상보도 한다.

총학
갑 - 대학 개혁위원회 만들어 논의 틀 마련하겠다
을 - 수영장에 개교1백주년 기념도서관 건립할 터
총여 - 소모임·학회 지원 통한 여학생들의 참여 유도 할 것



후보자들이 패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위). 열린 공청회에 대해 학생들의 관심은 여전히 저조하지만 하(왼쪽 아래).

지난 15일 중강당에서는 학교내 4개 언
론사(동대신문사, DUBS, 교지편집위원회,
동국 포스트)에서 나온 패널들과 제30대
총학생회(이하 총학) 정·부학생회장에게
출마한 갑 후보 구준서(전지공4)·이성
(국교3)조, 을 후보 허창수(정의3)·김준
환(건축3)조 그리고 제13대 총여학생회(이
하 총여)후보로 나온 이경원(철3)·이가
양(인문학부2)조가 자리한 가운데 공청회
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각 후보자들이 제시한
정책자료집에 의거해 패널들이 질의하고
후보자들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실시됐다.
식순은 △언론사 공개질의 △언론사 개별
질문 △심중 질의로 진행됐고, 후보자들의
답변은 3분으로 제한됐다.

-지금까지 총여의 사업은 홍보부족 등 여러
문제에 기인, 다수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지
못했다고 평가되는데, 총여 학생들의 많은
관심 유발과 참여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마련
돼 있는가.

=자발적으로 여학생들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활동하는 소모임이나 학회가 있
으면 지원 해나가는 방향으로 제13대 총
여는 여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해 나갈 것
이다.

-총학 갑·을 후보는 요즘 학두로 떠오르고
있는 학부제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을 후보 해결방안으로, 시행되는 전공
은 학과제도의 복구를 추진하고 인기전공
들은 학점을 엄격히 하는 것을 제안하고
이를 교수·학교측과 협의해 시행해 나
갈 것이다.

=갑 후보 지금 시점에서는 학부제에
대한 존재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논의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학부제에
대한 인식제고가 시급하다. 학부제 대책위
원회, 학부학생회 건설 등을 통해 학부제

표와 교수대표들이 모여서 논의해 가는
자리를 만들겠다.

-지금까지 학생회는 여러 사업을 시행하면
서, 학교측과 마찰이 있을 때마다 건물점거 및
집기를 내놓는 모습 등을 많이 보여 학생들에
게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지 못했던 것 같다.
마찰이 있을 때 학교측과의 의견형성은 어떻
게 해 나갈 것인가.

=을 후보 학생, 교수, 학교, 재단이 합
께 하는 4자 공동협의체를 만들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다. 학교측과 협상은 최대한
학생들의 입장을 수용하게 하고, 만약 그
협상이 수용되지 않더라도 다른 것을 얻
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일을 추진해 가겠다.

=갑 후보 양측에 잘못이 있다고 본다.
논의과정에 있어 지금까지의 학생회가 미
숙한 모습을 많이 보여왔다. 이에 우리는
3주간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대학 개
혁위원회'를 준비·구성해 논의의 틀을
만들겠다.

-갑 후보는 '합총련 사수' 등 기존의 총학
생회와 노선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
나 기존 학생회가 정치투쟁에 지나치게 치중,
학내에서 학생들에게 외면받았다는 평가에 대
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기존 학생회가 단지 정치투쟁에만 치
중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외면받았다는
논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단지 그 당시
사회적 상황이 이 땅의 청년에게 정치적
투쟁을 요구 했고, 총학생회는 이런 정치
투쟁과정에서 학내사업을 융화시키지 못
했다고 본다.

=을 후보는 교육환경개선의 일환으로 1학년
때부터 고시용 조성 등을 주장한 바 있는데
그 배경은 무엇인가.

= 현재 고시합격률은 대학의 위상을
나타내는 실질적 역할을 하고 있다. 물론
대학을 취업을 위한 준비단계로만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대학의 위상과 역할을 고

정된 틀 속에 가둬놓고 "이래야 한다"고
주장하는 아집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사고 위에 개개인의 의견이 존중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갑 후보는 합총련의 신뢰감 회복이 중요하
다고 했는데, 구체적 대안은 무엇인가.

=정치투쟁만 하는 것이 합총련의 모습
은 아니다. 현실활동, 수혜지역 복구 등
합총련 등 민중과 함께 하는 것도 바로 합총련의
모습이다. 이에 지지받지 못하는 정치투쟁
에서 벗어나 인정받을 수 있는 대중 사업
을 실시해나가고, 직접 학생들을 만나 얘
기하는 사업을 실시하겠다.

=을 후보는 내놓은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예산확보 방안이 마련돼 있는가.

=총학생회에서 예산을 지출하는 것이
아니다. 학교·재단·중구청과 같이 협
력해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총학생회가
예산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을 후보는 '총무로·본교 축제' 계획중에
연영과 동문을 초청한다는 이유는.

=현재는 PR시대라고 생각한다. 이에
경쟁력있는 과를 내세워 본교 위상을 드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갑 후보는 기숙사에 대한 대안이 있는가.

=지방학생이 서울에서 두번째로 많은
학교임에도 그 시설은 너무나도 열악하다.
학교근처에 본교 소유의 땅을 갖고 기숙
사건물을 짓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

=을 후보는 현 수영장 부지에 개교1백주년
기념도서관을 짓는다고 했는데 가능하다고
보는가.

=현 도서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서관 건립이 절실하다. 이에 서
울시와 연계한 시민도서관을 짓는 방안을
모색한 것이고, 서울시에 행정적 요구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기고 - 제15대 대통령선거와 정권교체

한국 민주주의의 퇴행과 역행
정권교체만이 살 길이다

15대 대통령선거가 3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시간이 흐를수록 선거구경하는
재미가 요즈음처럼 실감날 때가 있었던가 되묻게된다. 더불어 정권교체의 가능
성도 더욱 더 현실화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절대 권력은 내 줄수 없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을 그들 스스로 오래전부터 제기하고 있으며, 그것의 현실적 대안
으로 합종연횡 될 가능성도 현실화되고 있다. 권력을 그들만의 소유물로 착각하
는 이 어마어마한 발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하는가.

한국 민주주의의 현 단계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 바, 기
존 정치적 지배세력과 대결속에서 정권교체의 가능성을 현실화시킬 것을 요구
하고 있는 것이다. 제한적인 절차적 민주주의 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간파하지
않는 조건속에서, 우리가 명백히 해야할 것은 87년 6월항쟁 이후 제9차 헌법개
정을 통해 치러진 두 번의 대통령직선제는 그나마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주었
으나, 정권교체의 경향이 현실화되고 축적될 때만이 절차적 민주주의는 공고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 단계에서의 정권교체는 단순한 정권교체의 차원을 넘
어 한국현대 정치사에서 하나의 획을 긋는 일대 전환기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
다.

정권교체의 정당성은 먼저 한국 현대정치사에서 정치적 지배세력과 대결속
에서 정권교체의 전통이 전무하다는 데서 출발한다. 이것의 폐해는 국민들의 정
치적 허무주의와 무력함의 온상이 되어왔으며, 진보진영에서조차도 지배블럭으
로의 화려한 변질과 진보진영으로부터의 이탈을 촉진시킨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한국민주주의의 퇴행과 역행을 저지러 왔다고 볼 수 있다.

현 시점에서 정권교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우리의 역사속에서 현실화됨으로써 정당뿐만이 아
니라 전반적으로 정치가 활성화 될 것이다. 정치의 활성화란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정치불신과 무력감에서의 탈출로 이어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 수십년간 변하지 않았던(현상적으로 인물이 바뀌긴 했지만 본질적으로)
기존 지배블럭에 대한 전면적 재편을 기대하기란 불가능 하더라도, 엘리트의 순
환이나 강고하게 결집되어있던 지배블럭에 일정정도의 파열구를 뚫어주어 사
회·시민운동의 활성화 뿐만 아니라, 사회적 요구들을 수용할 수 있는 기제들이
활성화 될 것이다. 수십년간 배제의 매카니즘에서 소외되고 억압되었던 사회의
이해와 요구가 분출될 수 있는 현실적 토양들이 생성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셋째, 민중들의 이해와 요구가 기존 수권세력으로서의 야당이라는 존재 때문에
절절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할 때, 정권교체 이후 이들의 요구가 곧바로 진
보 대 보수의 대립전선으로 그려지는 데 높은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될 것이
다. 사실 한국 현대정치사에서 민주투쟁의 결과물들이 소위 말하는 보수야당에
의해 흡수되고 잠정된 사례가 있어왔다는 것에서 이제 이들이 실제적으로 정치
적 지배세력으로 등장한 이후에는 그들과의 직접 대결은 있을 수 있어도 민중의
이해와 요구가 그들에게로 직접 흡수되지는 않을 것이다. 넷째, '우리가 남이가'
라는 말로 경상도를 결집하게 만들었던 김영삼이 그의 실정 이후, 경상도 사람
들 스스로 책임을 통감하는 정서를 비교적 일반적인 정서라고 했을 때, 정권교
체는 경상도 뿐만 아니라 전라도를 포함하는 모든 지방의 뿌리깊은 지역정서를
극복할 타점이 될 것이다.

현 시점에서의 정권교체는 국민들 사이의 공감대를 확장해가고 있으며, 그 실
현의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진보진영에 대해 덧붙이자면 현재의 수준에
서(산별노조의 미조직, 노동자계급의 대지적 계급으로의 성숙도 등등) 당(黨)적
형태와 후보전술을 통한 정치세력화의 움직임에서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라
는 대전제에는 동의하지만, 그들이 과연 국민들의 대세적 흐름속에서 판단하고,
그 지점으로부터 대안을 창출해내는 것인가는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아야 한다.

현 시점에서의 정치세력화의 의미는 더욱더 기초조직을 장악해 들어가고, 대
지적 계급으로의 질적 성숙을 위한 작업과 아울러 민중운동 진영의 단결을 강화
해내는 것이다. 지금의 정치판을 모조리 쳐부수어야만 하는 스텝이 같은 존재들
로 매도하는 것은 현실을 기피하는 것이다. 더러은 정치판을 면밀히, 주의깊게
관찰하고 우리가 비집고 들어가, 우리에게 유리한 지형을 창출하는 조금은 머리
아프고 복잡한 사고를 동반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전 재수
대학원 정치학과 석사과정

SPC, MPS 베스트커플 베스트축제
렌즈 관리용품의 베스트 커플 SPC와 MPS가 베스트 축제를 실시합니다. 렌즈 세척과 단백질 제거를 단번에 끝내주는 SPC와 행금에서 소독, 보존까지 완벽하게 해주는 MPS도 구입하시고 갖고 싶었던 푸짐한 상품들도 받아보세요.
퀴즈축제
선물축제
SPC, MPS
베스트커플
베스트축제
렌즈 관리의 베스트 커플
SPC 에피에스
에피에스 MULTI PURPOSE

### 책소개

#### 재생

춘원 이광수가 1924년 11월 9일부터 1925년 9월 28일까지 동아일보에 연재한 장편소설이다. 시기상으로 볼 때 친일파라는 소문속에서 괴로운 나날을 보내다가 이를 극복하고 자신을 회복해가는 시기에 만들어진 작품이다.



흔히 이 작품은 3·1운동 실패이후 무력기에 빠진 조선의 젊은이들에 대한 절대로 이해되기도 하며 그 절타속에는 현재 우리 젊은이들에게 해당하는 부분이 많다. '재생'을 읽어보며 그 당시 젊은이들과 현재 우리 젊은이들의 모습을 비교하고 반성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출판사-우리문화사, 정가-7천원

#### 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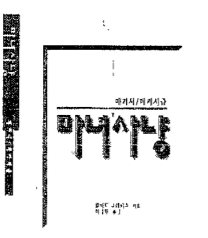
자본주의와 공간주의의 대립이라는 이데올로기적 한계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서구 중심의 문명사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주변부적 민중들의 전통문화와 사상속에서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있다. 이 책은 시인이자 사상가인 김지하의 작품으로 그의 생명사상의 시작과 발달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짚어 볼 수 있게 한다. 출판사-시경, 정가-6천원

#### 마녀사냥

50년대 미국에서 상원의원 매카시가 '요로에 공산주의자들이 암약하고 있다'며 증거없는 연속 폭로를 일삼았다. 이에 사회 전체가 이성을 잃고 반공열풍에 휩싸였다.



바로 이 사건이 마녀사냥에서 다루는 매카시 파동이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정치적 마녀사냥이 정치인의 집권욕과 언론의 센세이션alidade, 보수적인 미국인의 정서를 바탕으로 시작됐다고 분석한다. 아메리칸대 행정대학원 교수인 조버트 그리피스의 저서로 미국 역사학회가 수여하는 프레드리크 잭슨 터너상을 수상했다. 출판사-백산사, 정가-1만원

## 무임승차 달하나 천강에

공공재 공급에 있어서 '무임승차'라는 문제가 있다. 기령 50명 정원의 버스가 운행하는데, 이미 승객은 3,40명이 타고 있는 상태에서 나 하나쯤 공짜로 버스를 이용한다고 해서 하등의 문제가 될 것이냐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전체승객 혹은 상당수 승객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그 버스는 운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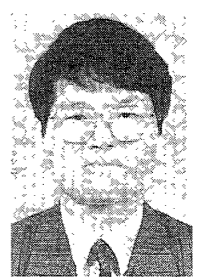
학교 캠퍼스를 다니다 보면 휴지나 담배꽂이, 낙서가 아무렇게나 되어 있는 것을 흔히 목격하게 된다. 또한 세면대 위에 물에 젖은 휴지가 곧 하수구를 막아버릴 것처럼 위험스럽게 놓여있는 경우를 거의 매일 한두번씩은 발견하게 된다.

또한 아직까지는 기초질서를 잘 준수하는 양식있는 학생들이 대다수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남들의 양식에 무임승차하려는 학생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 캠퍼스는 통제 불가능의 상태에 다다르게 될 것이다. 기령 일민병의 학생들이 매일 세면대 속에 휴지를 버려놓는다면 세면대가 제 기능을 할 수 있겠는가.

더욱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보다 큰 문제는 사회의 인식체계를 부정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사소한 무질서 행동을 많은 사람을 불쾌하게 하고, 무임승차하려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사람들 사이에 미워하는 감정과 불신을 낳으며, 학교 분위기를 쓸쓸하게 만든다.

반대의 경우로 여행 중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의 조그마한 도움이 우리의 가슴을 따뜻하게 하고 세상에 대해서 포근한 애정을 느끼게 했던 경험을 되살리다면 쉽게 수긍이 갈 것이다.

무심코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배려 속에 세상을 살아가려는 양식의 구결행위자이다. 그러한 사람은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고 인격의 유아로서, 남들의 행위에 대해서 논하기 전에 자신의 성숙을 위한 노력부터 경주해야 한다. 남이 보든 보지 않든 조그마한 공중도덕을 지키면서 자기의 일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학교, 사회의 버팀목이자 작은 영웅임에 틀림 없을 것이다. 그리고 세면대 위의 휴지를 남몰래 치우는 사람은 이 사회의 진정한 지도자이며 밝음의 전도자를 확신한다.



**문영세**  
법정대 행정학과 교수

## 박성배 석좌교수 '한국선' 강의평

# “옛말이 옳았다는 증거” 외우기·해석 융합된 온고지신 연구자세 역설

학생들은 잘 모를 것이다. 배우는 일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일찍 칠판을 등지게 된 나는 문득, 칠판을 향해 앉아 선생님의 말씀을 받아 적고 싶은 때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석좌교수 박성배(美 뉴욕 주립대) 선생님의 강의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오늘 강의의 일성(一聲)은 뜻밖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 아닌가. “외워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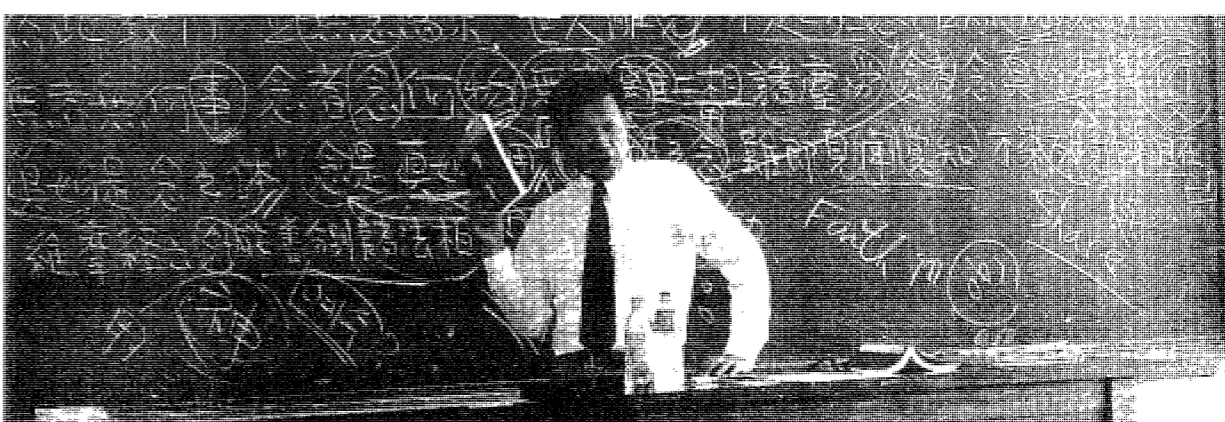
글쎄, 미국에서 오신 교수님이 웬 수지독송(受持誦講)? 먼저, '육조단경'을 외워야 한다는 말씀이다. 외울 수 있도록 읽고 또 읽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 아니 우리를 설득하기 위하여 소묘한 시간 이 얼마나 있었을까? 90분! 오늘 강의 시간의 딱 절반이다. 차법간 감독이 등장하고, 스모(일본 씨름) 선수의 부상을 증가현상에 대한 분석이 이어진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교재를 광그리 외우면서 하는 공부 방법론은 서당식이라는 것을. “외우기” 공부가 설 자리를 현대 학교교육에서는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박교수 역시 알고 있다. 그렇기에 그는 말한다. “속구에서 기술은 체력에 따라 나오는 것이며, 체력이 떨어지면 지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외우기는 기본적인 체력이며, 상상력의 발휘(철학)는 기술이다. 외우기를 통해서, 텍스트는 나와 하나가 된다. 체화(體化)된다. 외우고 있을 때, 그 텍스트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언제나 나와 함께 있으면서 공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외우는 것이 체(體)라면, 공리 끝에 나온 여러 가지 새로운 해석은 모두 용(用)이다.

체(體), 용(用) 그것은 어느덧 박교수의 전매특허인 양 되어버린 '체용의 논리'로 전개된다. 스모 선수에 비유할 수 있다. 근래 들어 스모 선수들의 부상이 점차 많고 있다는 것이다. 정좌 생활을 하던 스모 선수들이 서양식의 책상 생활을 하면서 기초가 부실해졌다는 것이다. 스모의 기초가 바로 정좌라는 것이다. 이때 집속의 정좌는 체이며, 집 밖의 스모는 용이 된다.

그런데, 이제 우리 삶의 양식은 모두



용의 논리만 따르고 있을 뿐 체를 잃었다는 것이 박교수의 문명비평이다. 침묵이 체이고, 언어와 행동은 용이다. 그런데, 언어와 행동만 무성하고 침묵은 찾아보기 어렵다.

“교수님, 체와 용을 똑같이 구별해 놓고 체를 먼저 행한다는 것이 현실 속에서 어려운 일 아닐까요?”

한 학생이 묻는다. 박성배 교수는 뉴욕에 살았던 한 효자의 예를 든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싶은 그 마음은 체인데, 실제 그 효자는 밥상 없이 일하느라 부모님께 아들을 자주 볼 수 있는 즐거움을 드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체와 용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때, 그 효자는 용에 치우친 것이라 비난받을 것이다. 그러나, 과연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는가? 질문자의 의도는, 그렇게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생각된다. 박교수 역시, 그렇게 평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한다. 논리적으로는 효심의 체가 더 소중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용의 우선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체용의 논리'를 말하는 박성배 교수의 학문은 한마디로, “옛날을 본받아서 오늘을 창조하자”(法古創新)의 학문이다.

김호성

### 열린 강좌 '우리 소리를 우습게 보지 마라'를 듣고

## 뼈있는 웃음으로 문화적 세대 세우기 강조

“우리 소리를 우습게 보지 마라”를 의치며 전극을 웃음의 장으로 만들고 있는 김준호씨가 지난 10일 본교 중앙당 무대에 올랐다.

중앙당을 메운 학생들은 2백여명 정도. 그동안 본교에서 열렸던 여러 행사에 모인 학생들의 수에 비하면 많은 편이다. 그만큼 요즘 '뜨고' 있는 김준호씨에 대한 관심이 큰 것이다.

그는 나흘전 교통사고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무대에 섰다. 더욱이 그의 부인 손심심씨는 오른쪽에 김스를 하고도 손가락만을 사용해 장고를 치면서 호흡을 맞췄다.

“세명 이상 모이면 '판'이 생긴다”(정치관, 노동관, 회부관...)는 것을 시작으로 그의 이야기 주머니가 열렸다.

그는 성악가 위주의 서양음악은 형식을 중요시하지만, 우리음악은 '일' 교수, 이창, 삼 청중'이라며 고수의 서열이 가장

높다고 했다. 약보없이 고수의 기본에 따라 하는 반주가 판을 짜지우지 한다는 것이다.

김준호씨는 마치 그러한 고수처럼 무형식의 형식으로 중앙당에 벌어진 판을 '요란하게' 만들었다.

소리꾼이 가장 영광으로 생각하는 칭찬은 “그놈이 참 질군요”와 “이면이 참 좋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덧붙여 그는 요즘 이러한 말을 전혀 알지 못해 쓰이지 않는 현실이 슬프다고 했다. 그만큼 전통문화가 사람들과 친숙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해금, 아쟁 등 각종 악기 소리를 흉내내고, 인간의 목소리라고 여겨지지 않는 고음의 노래를 부르고 난 뒤 그는 관객들



## 광고회사에선 오늘도 ...

“뚝뚝부터 영 아닌데, 이 구대리는 이렇게 해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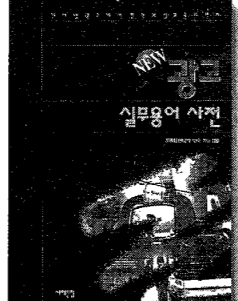
이걸 누끼따서 20% 행개이사시키고

베다는 뽀뽀해하러구.

삼미이 안 되도록 잘 해, 스리는 내일보도록 하지.”

광고인이 되시렵니까? 그럼 말부터 배우십시오.

# NEW 광고 실무용어 사전



- 매스컴, 정보통신, 디자인, 영상, 미술, 사진, 출판, 편집 등열린 관련 커뮤니케이션 백과사전
- 표준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업무에서 실제로 쓰이는 용어까지 다룬 살아있는 사전
- 많은 비주얼 자료와 실례를 실고 있어 머리에 속속 들어가는 빠르고 쉬운 사전
- 광고실무경력 20년의 광고학박사가 직접 집필한 깊고 풍부한 사전

도서출판 서해문집

● 책임편집 : 성명환 (광고학 박사) 정발/476쪽 / 25,000원  
 ● 배정국 : 도서출판 서해문집  
 서울 마포구 대흥동 137-1(2F) 전화 : 709-3278, 711-8230 팩스 : 709-3279

## 잊어버린 경제 이야기

백영준 저 (한국산업개발연구원)  
값 7,800 / 연암프레스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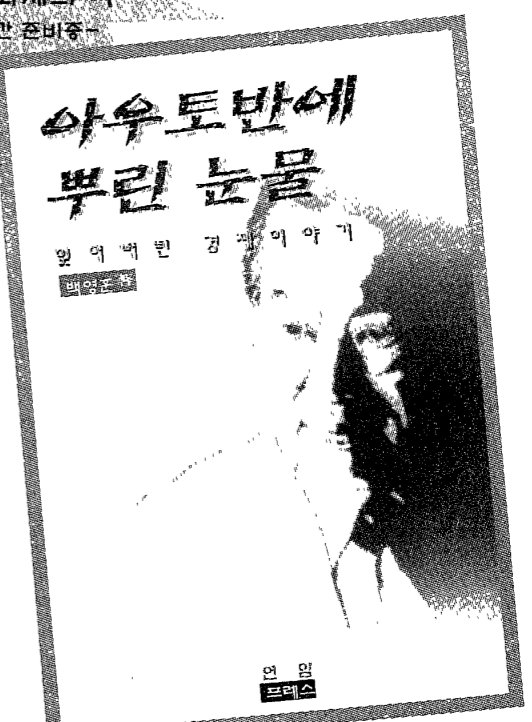
# 아우토파년에 뿌린 눈물

우리들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말리는 버스 안에서, 사람들 많은 전철안에서조차 책을 권 손을 놓을 수 없었던 것은 그것이 우리들의 이야기였으며 한장을 넘길때마다 무언가 잊지 못하는 느낌이 반복쳐 올라왔기 때문이었다. - 독자 / 이원재 -

요즘 우리 사회 지도층이라 지칭되는 이들에게 한권씩 보내주고 싶은 생각마저 든다. - 독자 / 김형준 -

성균관대학교 산업공학과 학생들이 보내주신 아름다운 감상문에 마음으로 부러워 감사사를 드립니다. - 연암 프레스 -



연암 프레스

K1 D, 연암 프레스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73-10 TEL. 584-1610, 587-3910 FAX. 587-3910, 584-1657 종관저 / 송지서적 TEL. 402 6211 FAX. 409-3588

### 영상매체비평

영화 - 옛보기 영화의 미학적 탐구



## 대리만족 앞서 인간존재 심층 탐구 주력해야

인간의 본능적 호기심 중의 하나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엿보고 싶은 욕망, 특히 이상의 은밀한 신비를 엿보고 싶은 욕망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합목적적인 설명으로도 용인할 수 없는 범죄행위인, 백화점 여자화장실의 플래카메라 소동은 공공장소에서도 공공연하게 옛보기가 시도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작은 사례에 불과하다. 쾌락적 정서가 비정상적으로 발달하면 관음증이나 성도착증 환자가 되겠지만, 감추어진 곳을 엿보고 싶은 호기심이야말로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이 아니겠는가.

최근 개봉되어서 충격을 준 다큐멘터리

영화 '쇼킹 아시아'는 인간의 관음증을 말초적으로 자극한 더러운 상업주의의 집적물이다. 독일 홍콩 합작의 이 영화에는, 싱가포르에서 행해진 게이의 성전환수술, 성기를 자르고 수술하는 장면 등이 적나라하게 여과없이 드러나 있다. 관객들을 옛보기에 동참시키면서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런 영화들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선택되는 공간이, 성행위가 일어나는 밀폐된 공간, 숙박업소다. 김의석 감독의 '홀리데이 인 서울' 박기용 감독의 '모델 선인장' 선우만 감독의 '마리아와 여인숙'은 각각 호텔, 모텔, 여인숙 등 숙박업소를 소재로 관객들의 옛보기를 자극하고

있다. 또 남녀 목욕탕을 배경으로 한 광경택 감독의 '역수탕', 산부인과 병원을 배경으로 출산장면 등의 옛보기를 시도한 '산부인과', 사창가를 배경으로 한 '강' 등의 영화도 이런 계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영화들이 늘어나는 것은 보다 현실적인 두 가지 이유, 즉 적은 제작비로 성적 공간에 대한 관객들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이다. 한 장소에서만 촬영하면 촬영시간도 줄어들고 제작비도 훨씬 적게 들어서 제작자들을 유혹하는 것이다. '모델 선인장'의 경우 정우성, 박신양, 진희경, 이미연 등 톱클래스 배우가 4명이

나 등장하는 데도 8억 5천만원의 적은 제작비로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영화 전체를 오직 모텔 방 하나에서 찍었기 때문이다. 연출팀은 서울 경기 지역의 50여 곳에 이르는 여관을 찾아다니며 사진과 비디오로 적은 자료를 바탕으로 셋트를 만들었다. 목실 딸린 모텔 방.

그곳이 영화의 유일한 배경이다. '역수탕' 역시 대부분 남녀 목욕탕 안에 카메라를 비추고 있다. 목욕탕에 모이는 온갖 인간군상들, 여탕에는 남편의 국회의원 당선을 위해 손님들 때를 밀어주는 후보 부인이라든가, 술집 종업원, 시어머니와 며느리, 여탕을 훑쳐보기 위해 위장을 하고 들어온 변태 등이, 그리고 남탕에는 온몸에 문신을 한 건달, 비노기과 의사, 상병에 걸린 스님, 페니스가 거대한 남자 등이 모여 있다.

이렇게 밀폐된 공간을 배경으로 한 영

화들의 장점은, 한 공간 안에서 집약된 이야기들을 밀도있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고, 단점은 영화의 역동성이 많이 약화된다는 것이다. 제한된 공간을 관객들이 답답하지 않게 하기 위해 카메라의 비중이 필연적으로 높아지는데, '모델 선인장'의 경우, '중경삼림' '동사서독' 왕기위 감독과 함께 찍은 촬영감독 크리스토퍼 도일을 초경해서 카메라를 달았다.

관객들에게 옛보기의 쾌락을 제공하는 이런 영화들이 단순히 말초적 감각에만 머물고 있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그것은 일회적 욕망의 대리만족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우리 영화가 옛보기의 욕망을 통해 인간 존재의 심층 탐구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선 상업적 유희에서 벗어나야만 한다.

하재봉  
영화평론가·시인

# 부지런한 대학생만이 자유를 누린다

모양이의 대학일기



"마서라! 부어라!"의 힘찬(?) 과정을 거치고, '아름 만큼 성숙해진다'라는 진리를 몸소 실천하고 있는 동국의 새내기 이모양!

이모양은 도서관에서 취직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문득 고교의 친구들이 떠올랐다.

그 시절, 이모양에게 있어서 대학은 '우리들의 천국'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였으며, '내일은 사랑'을 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공간이었다. 대학에 대한 기대와 환상을 키워가면서, 고난과 시련은 대학을 '사기 위한' 대가처럼 여겨졌다.

미팅을 해서 남자 친구도 많이 사귀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며 예쁜 옷도 사입고, 배낭여행도 가고.

무엇보다 이모양을 들뜨게 한 것은 바로 자유였다. 대학에 가면 술도 마실 수 있고, 화장, 머리 염색, 피마도 부모님의 허락 없이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친구들을 생각하는 것도 재미난 일. '우리들의 천국'에서 봤던 것처럼 스타터 그룹을 만들어 공부도 하고 싶고, '내일은 사랑'에 나왔던 이병헌처럼 잘 생긴 남자와 데이트도 하고 싶었다.

3월, 이모양이 가지고 있던 '대학=낭만'이라는 공식은 그대로 지켜졌다. 처음에는 신입생 환영회다 뭐다 해서 선배들과 술자리가 많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들해졌다.

한 학년당 1백명이 넘는 학부에서 선후배 사이가 돈독할리 만무하다. 서로 얼굴도 모르는 선배가 있는가 하면 설사 아는 사이라도 따뜻한 대화 한마디 제대로 나누지 못한다. 선배들은 취업준비 때문에 도서관으로, 학원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이모양은 자연스럽게 동아리에 가입하게 되었다.

동기 남학생들은 벌써부터 군인대를 하기 시작한다. 일찍 제대하고 취업 준비를 해야겠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 이모양은 친구들이 하나 둘씩 떠나니 서글퍼진다.

이모양의 숙원 사업(?)이었던 미팅은 학기 초에 '혹시나' 하고 나갔다가 '역시나' 하고 돌아오기를 두 번하고 난 뒤 흥미를 잃었다. 아르바이트 역시 학과 공부에 열중해야 하는 현실 때문에 그만 두었다.

갈수록 대학 생활에 흥미를 잃어가는 이모양. 대학은 그녀에게 더 이상 '낭만'이 아니다.

김미경 기자

## 캠퍼스 드라마, 연애·소비 일색 왜곡된 대학문화 조장

### '자유속에 기회' 찾아 대학정신 복구해야

'대학에 가면 무엇을 할 것인가'

10대들이 고민하는 자신의 미래 중에서 대학은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과정이다. 대학이란 과정은 단순히 통과례가 아닌 '개개인의 선택과 노력의 결과물'로 고교시절 시험공부에 매몰되는 학생들에게 탈출구의 같다. '공부'에 대한 의무를 벗어던지고 미팅과 술을 마저 즐길 수 있는 대학이 공부에 전념하는 10대들을 사로잡는 대학의 상이다.

그러나 막상 대학에 들어왔을 때 대학이 보여준 일상은 실망의 연속이 아닐 수 없다. 심도깊은 학문을 가르칠지라도 기대는 오히려 고등학교와 다르지 않은 수업에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한다. 북적거리는 동아리사무 같은 강의실에 짜증이나고 고등학교 교실이 그리워 지기도 한다. 공부에 대한 압박감은 등수로 매겨지는 공정한 '성적산출 방법'과 성적을 우선으로 전공을 선택하는 '학부제'란 미명아래 퇴색아닌다.

멋들어진 연애를 할 수 있을 것만 같던 기대도 몇몇의 소개팅과 미팅으로 부서지면 시간도 감당하지 못해 자유는 오히려 '식상한 자유'가 되어버린다. 학년이 올라가면 취업대란 속에서 그나마 살방죽을 찾아야한다는 의무감으로 토익이나 토플책을 끼고 도서관에서 대다수의 시간을 보내기 일쑤이다.

이대로 있다가는 아무것도 할 것 없이, 졸업할 것같은 불안감과 '어디서 무엇을 해야 대학 4년을 정말 멋지게 보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 앞에 대학초년생들은 그제서야 자신들이 무언가 '환상'을 동경하고 있었음을 발견하게 된다.

대학에 가기를 부추기는 주변사람들의 조언이나 매스컴에서 보여주는

대학생활이란 현실이 아닌 단순한 환상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특히 매스컴이 보여주는 대학의 모습은 한정되고

가식화된 것이 대부분이었다. '사랑이 꽃피는 나무'에서부터 '우리들의 천국', '내일은 사랑' 현재는 '레디고'에

이르기까지 캠퍼스 드라마는

고등학생들에게는 대학의 낭만과 자유를 보여주었다고 생각될지 모르나

대학생들에게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아왔다.

선남선녀의 인기스타들을 내세워 캠퍼스를 넘겨

연애일색으로 묘사했으며, 대학생들은 경제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지 않음에도 옷과 치는 외제

유명상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경제적부담을 고려할 때 학생들이 드나들기 힘든 장소임에도 드라마 속에는

별 부담이 없으며 환상 기발하고 재미난 일 연속으로 짜여진다. 매스컴 안의 대학은 천원일일을 뚝뚝 끊어

고공스런 건물과 화려한 분수대로 채워져 있어, 열악한 교육시설은 상상하기도 힘든 정도다. 드라마 속

고급자동차를 타고 다니며 서울 시내를 활보하고 다니는 대학생의 모습을 볼 때 대다수 대학생들은

공감하기보다는 낯의 나라 이야기로 인식하기 쉽상이다.

이에 흥영범(공학계열2)군은 "캠퍼스드라마는 정작 대학생활에서 필요한 어떤 것도 담고 있지 못하고 대학의

진정한 모습마저 퇴색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대학에 진정 있어야 할 것은 매스컴에서 보이는 연애일색과 물질적 풍요가 아니다. 최고의 교육인 것이다.

실상 가르치는 교육의 양과 질이 기대 이하라 할지라도 대학은 단지 공부하기 위해서 어떠한 순서를 밟아야하며

어떤 것에 관해 알고 싶다면 무엇을 공부하라는 식의 학업과정을 제시하지, 수단으로 학생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통제하지는 않는다.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만 지면 된다.

동아리나 학생회 활동에서도 어느 특별활동에 참가하라는 식이 아닌 주장과 활동을 가진 모임이 있으니 해보고 싶다면 움직여보라는 식이다. 주입식 교육처럼

일정화되고 정형화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대학사회에서 학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유에서 기회를 찾아가는 힘찬

발걸음일 것이다. 자유이라는 비옥한 토지에서 학생은 땀흘리는 농부가 되어 값진

열매를 수확해 내어주고 학교는 토지의 비옥도를 높이기 위해 한층 열과 성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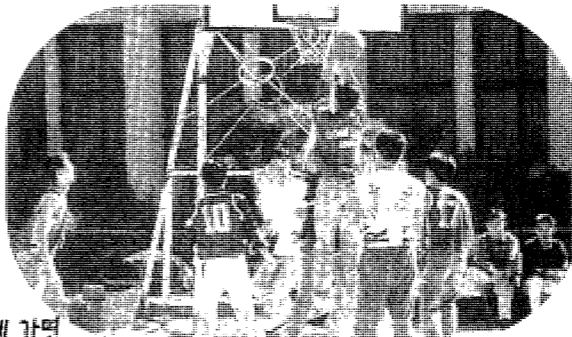
더해야 할 것이다. 매스컴의 상업화된 프로에 휩쓸리지 않으며 진리 탐구와 낭만을

즐기는 여유를 갖는 것이 대학인의 참 모습이다.

최진 기자



"대학에 가면 정말 모든걸 할 수 있을까?"



### 짧은 소식

학교 밖에서

여성영화제 다시보기

제1회 서울여성영화제 기간 중 인기를 모았던 작품 11편과 신작 2편을 상영한다. 요일별로 주제 선정에 영화를 상영하고 주제에 따른 프로그램머들의 강의 및 종합토론프로 진행한다.

내일 (18일)까지 극장 마녀에서. 문의 324-6008

국립극단 정기공연 파우스트

국립극단이 세계 명작 무대 시리즈의 일환으로 괴테의 파우스트를 극화한다. 단원들의 탄탄한 연기와 단우회의 우정출연. 특히 이번 무대는 원로단원 장민호의 50년 연기생활을 기념한다.

오는 24일까지 국립극단 대극장에서. 문의 271-1741

윤보 김기창 화백 미공개 작품전

한국 화단의 거목 윤보 김기창 화백의 미공개 작품전이 열린다. 30년대의 '동자', '부인' 등 시대별·연대별 특성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57점의 작품이 선보인다.

화가의 끝없는 실험정신과 창작열을 느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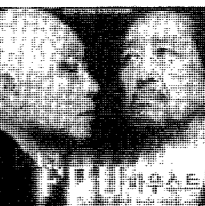
롯데화랑 본점은 오는 23일, 잠실점은 다음달 7일까지.

뮤지컬 김삿갓

서울 예술단이 32회 정기공연으로 방랑시인 김삿갓을 더한다. 시인의 생애를 탐미적으로 형상화하는데 초점, 관객의 상상력을 충족시켜주는 형태의 흥겹고 신명나는 무대.

기존의 뮤지컬 형태를 과감히 탈피하여 한국적 뮤지컬의 새로운 출구를 모색해 본다.

22일까지 예술의 전당 오케라 하우스에서. 문의 523-0984~7



### 메아리

## 권력과 인권

▲미디어는 권력 앞에 허를 좋은 옷일 수도 있다. 요즘같이 미디어가 대중문화에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을 보면 권력자의 이상과 신념을 보다 대중들에게 쉽고 안전하게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이 미디어에 틀림없다. 그래서 권력은 미디어를 시시 때때로 넘보고 있는지도 모른다. 심지어 스스로 권력의 눈과 입이 되길 자임하는 세력도 등장하곤 한다. 이는 권력의 쓴맛과

단맛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스스로 알아서 간다'는 편이 더욱 어울릴 듯하다. ▲그러나 무턱대고 미디어의 한 면만을 보고 전부인양 말할 순 없다. 때면 권력자들의 불필요한 권위와 허상을 폭로하기도 하고 그들의 만행을 질타하기도 한다. 이 또한 미디어의 다른 반쪽이 틀림없다. 그래서인지 권력은 이러한 미디어의 성향을 매우 시기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한다. 이 또한 대중들

속에 자리하고 있는 미디어의 영향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가능할 터이다. 실로 이중적인 모습임에 틀림없다. ▲며칠전 인권영화제를 준비했던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서준식씨가 검찰에 의해 구속됐다. 구속 사유인 즉 제4·3항쟁을 소재로한 '레드 헌터'를 상영했다는 것이다. 이는 부산 국제영화제에서 아무런 제약없이 상영됐던 영화가 '인권'이라는 이름을

걸고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는 사정이 큰 빌미로 작용한 듯하다. 우리가 흔히 말하고 듣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인 '인권'이라는 말이 이토록 무섭게 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인권영화제에 '국가보안법'을 적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명백히 밝혀 줄 수 있는 척도는 아직 없는 듯하다. 아마도 미디어의 한 부분인 폭로와 질타가 권력자들의 입맛에 안 맞았는지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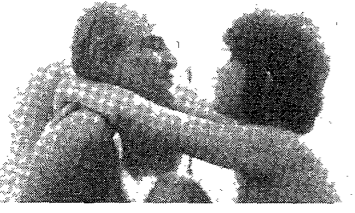
▲지난번 우리는 "우리나라엔 양심수가 없다"라고 외쳐 대던 권력의 추종세력과 그들의 허울좋은 웃음을 보았다. 그리고 며칠 후 그 권력에 맞서서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주장하는 양심적 미디어가 억압되는 것을 목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수가 있는가 없는가라는 상황설계가 계속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신중우 편집부장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4~5매 분량의 글이나 사진, 시, 만화를 기다립니다.

TEL: 2603491·2 / (0561) 7702057·8 FAX: 2791270 PC ID: dgpress

소나기

에로물



△우리나라는 에로물에 너무 인색, 그 한 에로 K대 이모양이 에로물에 출연했다고 학생들에게 이지매담하는 현실이 바로 그것이다.

△에로스형도 있고 에로스(?)사형도 있을까요?

△에로스형도 있고 에로스(?)사형도 있을까요?

△에로스형도 있고 에로스(?)사형도 있을까요?

△에로스형도 있고 에로스(?)사형도 있을까요?

△에로스형도 있고 에로스(?)사형도 있을까요?

△에로스형도 있고 에로스(?)사형도 있을까요?

△에로스형도 있고 에로스(?)사형도 있을까요?

△에로스형도 있고 에로스(?)사형도 있을까요?

△에로스형도 있고 에로스(?)사형도 있을까요?

△에로스형도 있고 에로스(?)사형도 있을까요?

△에로스형도 있고 에로스(?)사형도 있을까요?

△에로스형도 있고 에로스(?)사형도 있을까요?

△에로스형도 있고 에로스(?)사형도 있을까요?

△에로스형도 있고 에로스(?)사형도 있을까요?

△에로스형도 있고 에로스(?)사형도 있을까요?

△에로스형도 있고 에로스(?)사형도 있을까요?

△에로스형도 있고 에로스(?)사형도 있을까요?

△에로스형도 있고 에로스(?)사형도 있을까요?

△에로스형도 있고 에로스(?)사형도 있을까요?

△에로스형도 있고 에로스(?)사형도 있을까요?

△에로스형도 있고 에로스(?)사형도 있을까요?

△에로스형도 있고 에로스(?)사형도 있을까요?

△에로스형도 있고 에로스(?)사형도 있을까요?

△에로스형도 있고 에로스(?)사형도 있을까요?

△에로스형도 있고 에로스(?)사형도 있을까요?

△에로스형도 있고 에로스(?)사형도 있을까요?

△에로스형도 있고 에로스(?)사형도 있을까요?

△에로스형도 있고 에로스(?)사형도 있을까요?

△에로스형도 있고 에로스(?)사형도 있을까요?

△에로스형도 있고 에로스(?)사형도 있을까요?

△에로스형도 있고 에로스(?)사형도 있을까요?

△에로스형도 있고 에로스(?)사형도 있을까요?

△에로스형도 있고 에로스(?)사형도 있을까요?

△에로스형도 있고 에로스(?)사형도 있을까요?

△에로스형도 있고 에로스(?)사형도 있을까요?

△에로스형도 있고 에로스(?)사형도 있을까요?

△에로스형도 있고 에로스(?)사형도 있을까요?

△에로스형도 있고 에로스(?)사형도 있을까요?

△에로스형도 있고 에로스(?)사형도 있을까요?

채팅에서 만남까지 외모우선주의 버리길

최근 유행하고 있는 컴퓨터 통신을 통한 채팅, 채팅만큼 모르는 사람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게 친해지고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매개체는 없었다.

밤에 잠이 안오고 그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컴퓨터를 켜고 채팅을 한다. 많은 사람들이 만나게 되어 기쁘고 얘기를 나누며 친해지고 나면 과연 길거리에서 이렇게 인간관계가 생길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생긴다.

서로 어느 정도 친해졌다면 열명 '번개'라는 만남을 가지게 된다. 특히 남자와 여자의 관계였다면 더욱 상대가 궁금해 질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만남을 가지고 나서 나타난다. 상대방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정서적으로 어느 정도 친해졌지만 단순히 상대방의 외모가 자기의 상상과 다르다는 이유로 연락을 끊는 경우를 주위에서 종종 보아 왔기 때문이다.

상대방에 대한 호감이 번개를 통해 실망으로 바뀌고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끝나는 게 안타깝다. 너무나 쉽게 만나서 쉽게 헤어지는 인터넷 만남이 가지고 있는 맹점이 아닐까 한다.

'접속'이라는 영화는 컴퓨터통신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편승하여 흥행에 성공했다. 그 영화를 본 사람들은 많은 부분 공감했을 것이다. 반면에 채팅에 대한 모든 것을 좋게 보아 게만 꾸민 것은 아닐까?

접속이란 영화의 흥행이후 통신에는 채팅의 문제점을 꼬집는 유머가 유행했었다.

접속의 마지막 장면에서 약속장소에서 기다리던 여자 전도연이 아니고 웃스킨 여자였다면 과연 한석규가 쫓아가서 이는 적을 했을까? 만약 전도연을 잡은 남자가 한석규가 아니라 웃스킨 남자였다면 과연 전도연이 기쁨의 눈물을 흘렸을까?

채팅에서 '번개'까지하기에는 용기가 필요했던 만큼 그 용기와 만남에 책임을 짊어줘야 할 것 같다. 외모보다는 그 사람과 좀 더 친밀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네티즌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 자세일 것이다.

최일주(공과대 전자전공학부)

경로석 규범 찬반론 상대방입장 배려해야

어느 생활이건간에 그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 진화하기도 퇴화하기도 한다. 어떤 형태가 진화하는 것인지, 퇴화하는 것인지 그리고 생활체간의 우열을 가를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인간도 지금껏 변화했고 그 종족을 보존시켜왔다.

그런데 인간이라는 생명체는 다른 것들과는 달라서 사회라는 테두리 안에서 생활하게 되었고 이성이라는 것을 지니게 되었다.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인간은 규칙들을 만들어야했고 자신들이 습득한 지식들을 후손에게

전수시켜왔다.

그러나 인간이라는 생명체는 다른 것들과는 달라서 사회라는 테두리 안에서 생활하게 되었고 이성이라는 것을 지니게 되었다.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인간은 규칙들을 만들어야했고 자신들이 습득한 지식들을 후손에게

전수시켜왔다.

그러나 인간이라는 생명체는 다른 것들과는 달라서 사회라는 테두리 안에서 생활하게 되었고 이성이라는 것을 지니게 되었다.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인간은 규칙들을 만들어야했고 자신들이 습득한 지식들을 후손에게

전수시켜왔다.

그러나 인간이라는 생명체는 다른 것들과는 달라서 사회라는 테두리 안에서 생활하게 되었고 이성이라는 것을 지니게 되었다.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인간은 규칙들을 만들어야했고 자신들이 습득한 지식들을 후손에게

전수시켜왔다.

그러나 인간이라는 생명체는 다른 것들과는 달라서 사회라는 테두리 안에서 생활하게 되었고 이성이라는 것을 지니게 되었다.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인간은 규칙들을 만들어야했고 자신들이 습득한 지식들을 후손에게

전수시켜왔다.

그러나 인간이라는 생명체는 다른 것들과는 달라서 사회라는 테두리 안에서 생활하게 되었고 이성이라는 것을 지니게 되었다.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인간은 규칙들을 만들어야했고 자신들이 습득한 지식들을 후손에게

전수시켜왔다.

그러나 인간이라는 생명체는 다른 것들과는 달라서 사회라는 테두리 안에서 생활하게 되었고 이성이라는 것을 지니게 되었다.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인간은 규칙들을 만들어야했고 자신들이 습득한 지식들을 후손에게

전수시켜왔다.

그러나 인간이라는 생명체는 다른 것들과는 달라서 사회라는 테두리 안에서 생활하게 되었고 이성이라는 것을 지니게 되었다.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인간은 규칙들을 만들어야했고 자신들이 습득한 지식들을 후손에게

전수시켜왔다.

그러나 인간이라는 생명체는 다른 것들과는 달라서 사회라는 테두리 안에서 생활하게 되었고 이성이라는 것을 지니게 되었다.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인간은 규칙들을 만들어야했고 자신들이 습득한 지식들을 후손에게

전수시켜왔다.

교육시켜야했다. 후손들은 자신들에게 생명을 갖게 하고 우리세대보다 여러가지 인생경험을 먼저한 선대들을 존중하고 따르게 되었다. 후손들의 선대에 대한 태도는 각 나라마다 다르지만 동양권의 나라들에서는 특히 선대에 대한 공경심이 많은 가치를 둔다. 아직까지 유교적 사상이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웃어른에 대한 공경심을 매우 중요시한다. 그러나 요즘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의 경로석이 경로석의 본래의 취지에 맞게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에 경로석에 대한 규범을 만들어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찬·반론이 수성하다. 경로석 양보 문제만을 가지고 젊은이들의 공경심을 판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웃어른에 대한 공경심이 어떻게 보면 유교적 관점에 길들여진 시대에 뒤떨어진 것일 수도 있고, 반대로 공경심은 인간의 도리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무엇보다 서로간의 이해와 배려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각자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찾으려 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을 한 번쯤 생각해 본다면 보다 여유있는 생활이 될 것이다.

김경미(문과대 독어독문학과)

빈번한 학내 분실사고 따뜻한 양심만 해결책

요즘 며칠사이 사고가 자주 늘고 있다. 원효관 2층에 있는 여학생화장실에는 '돈을 가져가도 좋으니 제발 신분증이라 지갑만을 돌려달라'는 문구가 새겨진 종이 붙어 있다.

그러나 그후 소식은 감잡았다. 아마도 지금쯤은 지갑이 주인에게 돌아갔을 수도 있겠다. 물론 지갑을 잃어버린 당사자도 자기 물건을 소홀히 다룬것에 잘못은 있었지만 분실물을 취득한 사람도 우선은 잃어버린 사람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분실물속에 혹시라도 잃어버려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 들어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은 주위에 한 친구가 지갑을 분실해 혹시나 경비실이나 단대에 있을거란 생각을해 막상 그곳으로 갔으나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최근에 습득된 것도 없었다.

온방골의 모든 화우들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 중 자신이 발견하고도 그냥 지나치거나 가져간다면 과연 '올바른 지성인의

행동'이라 할 수 있을까?

필자도 물건은 분실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고맙게도 고소란히 돌려받은 적이 있었다. 그것도 직접 찾아와서 "안에 빠진 물건이 없는지 확인해 보라"며 건네 주었다. 이렇듯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따뜻한 양심이 있다. 다만 몇몇의 학생들이 좋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을 뿐이다.

자기것이 소중한 만큼 남의 것 또한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이덕수(상경대 정보산업학과)

버릇없는 아이 행동 부모의 매서운 꾸짖음 필요

요즘 아이들을 보고 버릇없는 말을 어른들은 자주한다. 실제로 대부분의 젊은 부부들은 아이들의 기를 살려야만 구경살림이 대성한다는 주책맞은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얼마전 백화점에서의 일이었다. 엘리베이터 안에 꽤 많은 사람들이 뒀다. 10살이 채 안된 꼬마 둘을 데리고 탄 부부가 있었다.

이 두 꼬마는 말 그대로 천방지축에 안하무인이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다가 하면, 되지도 않는 노래를 부르고 급기야 저희들끼리 치고 받다가 옆에 있는 젊은 아가씨의 치마까지 잡아당겼다.

더욱이 횡단한 것은 아버지로 보이는 사람이 호탕한 듯 미소를 짓고 있었고, 어머니로 보이는 사람은 마지막에 가서야 고작 '하지마'라는 한마디 뿐이었다. 다른 승객들의 눈살이 찌푸러지고 젊은 아가씨는 놀란 가슴에 얼굴까지 파래졌지만 그 아이들의 부모는 미안하다는 인사는 커녕 얼굴 빛조차 변하지 않았다.

아무리 어린이가 왕대접 받는 세상이라지만 이 정도는 독재도 이런 독재가 없다. 자기자식 귀찮출만 알았지 사람만들기를 포기한 한심한 부모들.

'뽀얏(언어) 多與權(다어권)이요, 權(중어)엔 多與食(다어식)아니라'

귀여운 자식에게 매를 많이 주고, 미운 자식은 밥을 많이 준다. 즉 미운놈 떡하나 더 준다는 말도 있는데, 요즘 부모들 이쁜 놈에게 자주 떡을 주니 배부른 티끌만 하게 되었다.

서희준(사과대 신문방송학과)

동문칼럼 조동훈 (경영85출·경상북도 도의회의원) 취업 적극적으로 두드려라

바야흐로 취업시즌이다. 매스컴이 전달하는 소식을 접하면 울리는 취업대란이 일어나고 있어서 취직자가 잡늘의 발파기라고 한다. 실로 우리를 슬프게 한다. 매년 이때가 되면 통과례를 치르듯이 항상 있어 온 일이지만 올해는 체감정도가 더 강하게 느껴진다.

한국의 경제뿐만 아니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의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일탈러당 천원대로 진입하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더해 주고 있다.

주가가 하락하면 기업들은 증권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워져 신규투자가 불가능해진다.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원자재를 수입할 경우 원화화락 부분만큼 경쟁력에서 뒤떨어지게 되고 결국 국내경제의 침체로 나타난다.

기업의 사정이 이렇진대 신규인력의 채용을 늘리는 회사가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오히려 현재인원도 명목퇴직시키고 있는데 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스스로 길을 터둬야 하겠다. 가만히 취업걱정만 해서는 안된다. 우선 문을 두드려야 한다. 초인종을 누르지 않으면 문을 열어주지 않듯이 여러 회사에 자기의 상품가치를 알릴 필요가 있다. 즉 취직원서 제출을 적극적으로 해야한다.

그 다음으로 틈새시장을 개척하는 것이다. 대형백화점 바로 앞에 구멍가게가 있듯이 세상 어느 곳이나 틈새는 있다. 이 틈새를 개척하여 자영업에 도전해 보는 것이다. 컴퓨터 분야는 물론이고 유통분야를 비롯해서 실제 생활에서 아주 가까운 곳까지, 찾아보면 반드시 틈새는 존재하기 나름이다.

젊은이들이 적은 자본과 아이디어로 도전해 볼 만한 사업이 분명 있을 것이다. 앞으로는 소규모 자영업사업자의 시대가 활짝 열릴 것 같다. 여기에 도전해 볼 가치는 충분이 있고 분명 가능성도 많다.

현실 세계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는 박차고 나가야 한다. 길을 가보지도 않고 포기한다거나 중도에 주저해서 안된다. 자기 불빛이 보이는데 조금 돌아가는 길이면 어떻고 또 조금 험한터 어떤가?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오직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젊음을 충분히 발휘하고 발산할 수 있는 그날을 후배들에게 기대해 본다.

조동훈

다량한 학생·문화관 그리고 식당 차림표

Table with 2 columns: Date (월, 화, 수, 목, 금, 토) and Menu items with prices.

동국관 교직원·학생식당 차림표

Table with 2 columns: Date (월, 화, 수, 목, 금) and Menu items with prices.

동악광장

목면길 축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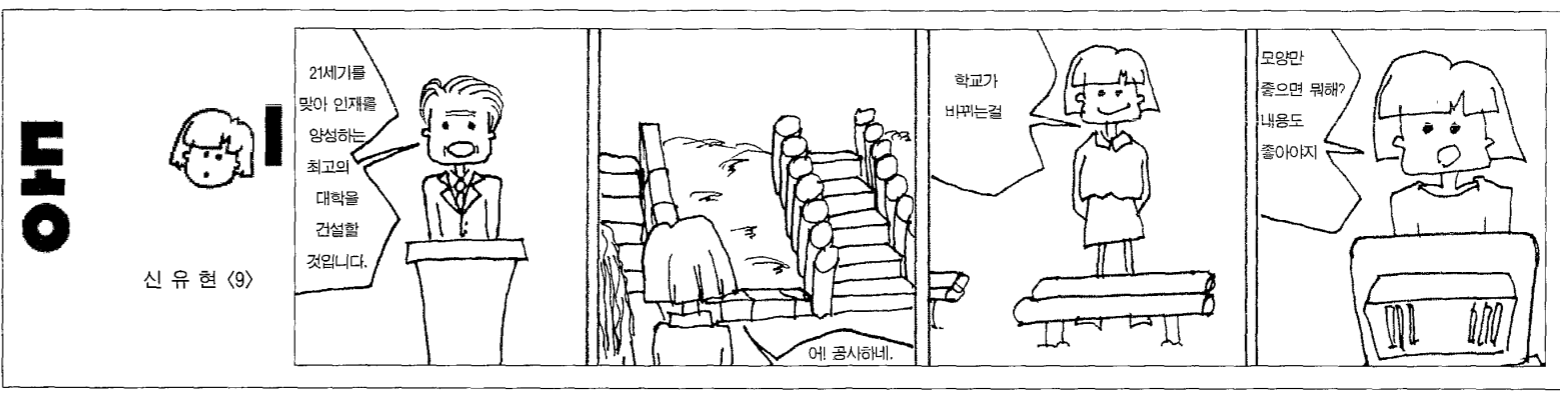
△경·통(아) 귀영봉이 경력이 생일 축하한다. -진호 △통대 아마추어 야구부 L.A.의 추계리그 우승을 축하드립니다. -루키일동

△경예, 호근, 소연 늦었지만 진심으로 생일 축하합니다. -카니발 △이쁜 숙이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더 이쁜 지현

△경·통 윤이 생일 축하해! △성호야 선영이 백일 축하한다. 희선이 생일도 역시 축하한다. -생지부

△성나현 생자대회장 당선 축하드려요. △영모야 너의 화려한 솔로 탈퇴를 축하한다. △이부 무억 95학번 손준병 선배의 군입대를 축하하며 잘 다녀오세요. -기만

△수고하셨습니다



21세기를 맞이 인재로 양성하는 최고의 대학을 건설할 것입니다.

21세기를 맞이 인재로 양성하는 최고의 대학을 건설할 것입니다. 신유현 (9)

21세기를 맞이 인재로 양성하는 최고의 대학을 건설할 것입니다. 신유현 (9)

21세기를 맞이 인재로 양성하는 최고의 대학을 건설할 것입니다. 신유현 (9)

21세기를 맞이 인재로 양성하는 최고의 대학을 건설할 것입니다. 신유현 (9)

21세기를 맞이 인재로 양성하는 최고의 대학을 건설할 것입니다. 신유현 (9)

21세기를 맞이 인재로 양성하는 최고의 대학을 건설할 것입니다. 신유현 (9)

21세기를 맞이 인재로 양성하는 최고의 대학을 건설할 것입니다. 신유현 (9)